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EVELOPPEMENT

주요 내용

2025 아프리카 경제전망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자본
활용 개선



목차

머리말	i
감사의 글	iii
주요 내용	1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 및 전망	1
효과적인 국내 자본 동원 및 효율적 활용 증진	10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의 자본 활용: 제도, 경제 거버넌스 및 법치의 역할	21
주석	33
참고문헌	35
그림	
1 2022~2026년 지역별 성장 및 성과 전망(퍼센트)	3
2 2025~2026년 평균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5





머리말

2025년 아프리카 경제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 AEO) 보고서는 전례없는 글로벌 상황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2025년 4월에는 주요 경제국들의 무역정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질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쳤다.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국들은 주로 국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원조 삭감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제개발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분명 자금 압박을 받을 것이다.

반복되는 다중 충격과 관세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아프리카의 성장 전망은 2025년 2월 거시경제 성과 및 전망(Macroeconomic Performance Outlook, MEO) 보고서의 예측치 대비 2025년과 2026년 각각 0.2% 포인트와 0.4% 포인트 하향 조정되어 3.9%, 4.0%가 되었다. 이러한 회복력은 지난 10년간 효과적인 국내 개혁, 상대적 다변화, 개선된 거시경제 관리를 통해 어렵게 얻은 성과에서 비롯된다.

현재 진화하는 글로벌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외부 의존이 좋은 개발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프리카가 풍부한 자본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빈곤하지 않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활용되지 않은 자본으로 제약을 받는 대륙이다. 풍부한 천연자원, 역동적인 기업, 기업가 정신, 젊고 성장하는 인구를 보유한 대륙에게는 패러다임 전환과 서사적인 변화를 꾀할 시점이다. 아프리카가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강점을 활용하며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외부 의존과 후원에서 벗어나 변혁된 잠재력의 대륙이 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2025 AEO 보고서는 진단이자 로드맵이다. 깊이 있고, 적절한 순서가 정해진 개혁을 통해 아프리카는 재정, 천연, 금융, 사업, 인적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에서 초기 1조 4,300억 달러의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아프리카의 연간 자금 조달 격차 추정치인 1조 3,000억 달러를 초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는 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 누출을 억제하며 활기찬 비공식 부문을 공식화 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심화시키며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아스포라의 변혁적 힘을 활용해야 한다.

제도, 경제 거버넌스, 그리고 법치주의는 아프리카의 자본이 신중하고 공평하게 관리 되도록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투명한 공공재정관리, 보장된 재산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률 시스템은 투자자 신뢰와 시민 신뢰를 구축하는 기초적 원칙이다. 이러한 기둥들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투자를 견인하고, 자본 유출을 줄이며, 아프리카 자본의 수익이 모든 아프리카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자본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더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필수 과제이다. 이는 재정 여력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심화하며 대륙의 가장 큰 자산인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혁에 대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지역회원국이 개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와 정책 지원,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이들 국가의 자본을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자본이 아프리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풍부한 자본과 지속되는 개발 격차가 함께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해 나가자.

아킨우미 아데시나

아시아개발은행그룹 총재

감사의 글

2025 아프리카 경제전망(African Economic Outlook, AEO) 보고서는 경제거버넌스 및 지식담당 부총재실(Economic Governance and Knowledge Management, ECVF) 복합기구에서 작성했으며, 이 기구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담당 부총재인 케빈 치카 우라마(Kevin Chika Urama) 교수의 총괄 지휘와 감독 하에 페르디낭 바쿠프(Ferdinand Bakoup), 아다몬 무카사(Adamon Mukasa), 아마 코피(Amah Koffi), 자스마 살림 아메드(Jasma Salim Ahmed)의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각 장의 작성은 보고서 제작을 담당하는 거시경제정책·예측·연구부(Macroeconomic Policy, Forecasting and Research, ECMR)의 안토니 심파사(Anthony Simpasa) 부장이 감독했다. 핵심 팀은 안토니 심파사(ECMR 부장), 하메드 아무사(ECMR.1 담당자), 알렉상드르 코포앵(Alexandre Kopoin), 라시나 발마(Lacina Balma), 프란시스 레니 안구요(Francis Leni Anguyo), 아시 오카라(Assi Okara), 마틴 와풀라 난델렝가(Martin Wafula Nandelenga), 케바 자메(Kebba Jammeh)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ECMR.1 소속이다. 제1장은 알렉상드르 코포앵과 라시나 발마가, 제2장은 프란시스 레니 안구요와 아시 오카라가, 제3장은 하메드 아무사와 마틴 와풀라 난델렝가가 각각 공동으로 담당했다. 위니프레드 도(Winnifred Doe), 리처드 두투(Richard Dutu), 블레즈 니마순(Blaise Gnissou), 자카리 세오고(Zackary Seogo)는 보고서의 여러 부분 작성에 참여했다. 행정 업무는 하미다 리아히(Hamida Riahi), 펠리시 존고 카보레(Félicie Zongo Kaboré), 마리 테레즈 은지(Marie Thérèse N'zi), 마이클 아바(Michael Abah)가 담당했다.

보고서의 통계 정보는 바바툰데 샘슨 오모토쇼(Babatunde Samson Omotosho) 통계부장(Statistics Department, ECST)이 이끄는 통계부에서 편집했으며, 루이 쿠아 쿠아쿠(Louis Koua Kouakou) 과장(ECST.1)과 아누아르 차우치(Anouar Chaouch), 수마일라 카람비리(Soumaila Karambiri), 스테판 레지스 하우후트(Stephane Regis Hauhouot), 슬림 제르비(Slim Jerbi), 베자예 코킬(Beejaye Kokil) 등이 지원했으며, 이들은 모두 ECST.1 소속이다.

세계 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개발은행 내외부의 여러 전문가들이 귀중한 기여를 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유진 뎀퐁(Eugene Bempong)이 이끄는 ECMR.2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아모수 오몰라 치아조르(Amossou Omolola Chiazor), 허버트 아이넴바바지(Herbert Ainembabazi), 사하왈 알리두(Sahawal Alidou), 마마두 바(Mamadou Bah), 오리에타 코비(Orieta Covi), 프란시스 케메제(Francis Kemeze), 패트릭 마부자(Patrick Mabuza), 마이클 마초코토(Michael Machokoto), 마벨리스 카지마(Marvelous Kadzima), 스티브 음볼로(Steve Mbollo), 조지 마르부아(George Marbuah)가 참여했다. 제2장 작성에는 은행 외부 전문가인 칼루 오자(Kalu Ojah)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대학교 위츠 경영대학원), 크리스토퍼 카동고(Christopher Kadongo)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대학교 위츠 경영대학원), 아민 카리무(Amin Karimu)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경제학과)가 의견을 제공했다. 제3장은 마레 사르(Mare Sarr) 교수(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조나단 무네모(Jonathan Munemo) 교수(미국 솔즈베리대학교), 피터 무리우(Peter Muriu) 교수(케냐 나이로비대학교), 데이비드 파디란(David Fadiran) 박사(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경제학과)가 보완 작성했다.

또한 은행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으로 보고서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은행 내에서는 데지레 J. M. 벤카타첼름(Desire J. M. Vencatachellum) 수석부장이 이끄는 국가경제부(Country Economics Department, ECCE) 이코노미스트 팀으로부터 의견과 제안을 받았으며, 이 팀은 에르베 로후에스(Herve Lohoues) 과장(ECCE.1), 링게레 M. 음바예(Linguere M. Mbaye) 과장(ECCE.2), 그리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인 에드워드 세노가(Edward Sennoga), 조지 카라라치(George Kararach), 아마두 볼리(Amadou Boly), 오드리 베르디에-슈샨(Audrey Verdier-Chouchane), 마르셀랭 동 타(Marcellin Ndong Ntaho)로 구성되었다. ECCE부의 리처드 안토넬 도폰수(Richard Antonin Doffonsou), 피터 엔보 라스무센(Peter Engbo Rasmussen), 살마 에투하미(Salma Ettouhami)도 검토에 참여했다. 추가로 거버넌스 및 경제개혁부(Governance and Economic Reforms Department)의 존 무바바리와(John Muvavarirwa)와 아프리카 천연자원관리 및 투자센터의 레온틴 칸지엠(Leontine Kanziemo), 이노센트 오나(Innocent Onah)로부터도 의견과 제안을 받았다.

외부 동료 검토자로는 크리스토퍼 애덤(Christopher Adam) 교수(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레옹스 은디쿠마나(Léonce Ndikumana) 교수(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 스티브 카이지-무게르와(Steve Kayizzi-Mugerwa) 교수(지이카 앤 어소시에이츠 LLC), 라모스 마부구(Ramos Mabugu)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솔 플라체 대학교), 부사니 모요(Busani Moyo) 교수(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대학교), 테오픈 T. 아조마후(Theophile T. Azomahou) 교수(프랑스 클레르몽 오베르뉴 대학교, CNRS-CERDI), 존 무쿰 음바쿠(John Mukum Mbaku) 교수(미국 웨버주립대학교), 아산다 포토이(Asanda Fotoyi) 박사(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랜드대학교)가 포함되었다.

주요 보고서의 국가별 주석은 데지레 J. M. 벤카타첼룸(Desire J. M. Vencatachellum) ECCE 수석부장의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 하에, 링게레 M. 음바예(Linguere M. Mbaye)와 마르셀랭 동 타(Marcellin Ndong Ntah)의 조정을 통해 국가 담당 이코노미스트들이 작성했다(아래 표 참조). ECMR 직원들이 모든 국가별 주석을 검토했다.

ECST 직원(아누아르 차우치(Anouar Chaouch))이 작성했으며, ECCE 과정들(링게레 음바예(Linguère Mbaye)와 에르베 로후에스(Hervé Lohoues))과 각 지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중부아프리카(아마두 볼리(Adamou Boly)), 동부아프리카(가이 블레즈 은카를레우(Guy Blaise Nkamleu)와 조지 카라라치(George Kararach)), 나이지리아 국가부(제이콥 오두오르(Jacob Oduor)), 북부아프리카(오드리 베르디에-슈산(Audrey Verdier-Chouchane)), 남아프리카(에드워드 세노가(Edward Sennoga)), 서부아프리카(마르셀랭 동 타(Marcellin Ndong Ntah)와 제이콥 오두오르(Jacob Oduor))—의 기술 지원과 검증을 받았다. 트리시아 바이두(Tricia Baidoo)와 유제니아 난과 그랜트(Eugenia Nyankwa Grant)가 행정 지원을 제공했으며, 아비르 브디우이(Abir Bdioui)가 팀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보고서 표지는 은행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관계부의 라에티티아 야티엔-아미게(Laetitia Yattien-Amiguet)와 저스틴 카바셀레(Justin Kabasele)의 일반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사용했다. 편집, 번역, 레이아웃은 브루스 로스-라슨(Bruce Ross-Larson)이 이끄는 커뮤니케이션 디벨롭먼트 인코퍼레이티드(Communications Development Incorporated) 팀이 담당했으며, 조 카포니오(Joe Caponio), 마이크 크럼플러(Mike Crumplar), 메타 드 코퀘로몽(Meta de Coquereumont), 크리스토퍼 트로트(Christopher Trot), 일레인 윌슨(Elaine Wilson)이 참여했고, 장폴 다일리(Jean-Paul Dailly)와 JPD 시스템즈 팀이 번역을 지원했다.

국가별 작성자

지역	국가	국가 이코노미스트/작성자	지역	국가	국가 이코노미스트/작성자
중부	과장	링게레 M. 음바예(Linguere M. Mbaye)	남부	과장	에르베 로후에스(Herve Lohoues)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마두 볼리(Adamou Boly)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드워드 배테 세노가(Edward Batte Sennoga), 사니 야이(Sanni Yaya)
	카메룬	온디아예, 아메트 살롬(Ndiaye, Ameth Saloum) 칸 장게, 고드윌(Kan Tange, Godwill)		앙골라	무지마, 조엘 다니엘(Muzima, Joel Daniel)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망갈레, 세바스티앵 테오픈(Mangale, Sebastien Theophile)		보츠와나	음푸가, 폴(Mpuga, Paul)과 테오 아완잠 브리암(Theo Awanzam Briamh)
	지드	코나테, 압둘라예(Konate, Abdoulaye)		레소토	나케리, 신시여 난자마(Nyakeri, Cyrthia Nyanchama)
	콩고민주공화국	음바 은고이, 데보라(Ngoyi, Deborah)와 만랑, 올리비에(Manlan, Olivier)		마다가스카르	디코, 허마스레(Dicko, Hamacre)
	콩고공화국	베기, 올리비에(Begy, Olivier)		말라위	마푸시레, 알버트(Mafusire, Albert)
	적도기니	디아우르, 디아우 엘리자베트(Dioud, Diadou Elisabeth)		모리셔스	쿠모, 볼라사 라위소(Kumo, Wodassa Lawisso)
	가봉	쿨리발리, 이시야키(Coulibaly, Issiaka)		모잠비크	소아레스 다 가마, 플라비오 A.(Soares Da Gama, Flavio A.)
	동부	과장		에르베 로후에스(Herve Lohoues)	나미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지 아우마 카라라치(George Auma Kararach), 가이 블레즈 은카를레우(Guy Blaise Nkamleu)	상투메프린시페	호세 안토니오 페드로사 가르시아(Jose Antonio Pedrosa Garcia), 무지마, 조엘 다니엘(Muzima, Joel Daniel)	
부룬디		디베레, 장 마리 비아네(Dabire, Jean Marie Vianney)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코나, 피터(Akhona, Peter), 폴 음푸가(Paul Mpuga)	
코모로		알로, 칼리두(Diallo, Kaldou)	에스와티니	은세라, 에디리사(Nseera, Edirisa)	
지부티		가라드, 말리크 모하메드(Garad, Malk Mohamed)	잠비아	후엔닌보, 투생(Huenninbo, Toussaint)	
에리트레아		아굴라, 나다니엘 울루오치(Agula, Nathaniel Oluoch)	짐바웨	밴다, 켈빈(Banda, Kelvin)	
에티오피아		아굴라, 나다니엘 울루오치(Agula, Nathaniel Oluoch), 제리훈, 에드미트 원디르우(Zerhun, Admit Wordfraw)	서부	과장	링게레 M. 음바예(Linguere M. Mbaye), 에르베 로후에스(Herve Lohoues) (나이지리아)
케냐		온툼와, 캐롤라인 버니스 아키술레(Ntumwa, Caroline Bernice Akishule)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콥 오두오르(Jacob Oduor), 마르셀랭 동 타(Marcellin Ndong Ntah)
르완다		오데로, 월터 오우오르(Odero, Walter Ouwor)와 비야우카마, 버니스(Byamukama, Bernis)		베냉	다요, 탄키엔(Dayo, Tankien)
세이셸		지니 엘리자베스(Ginny Elizabeth), 오데로, 월터 오우오르(Odero, Walter Ouwor)		부르키나파소	안드리앙벨로소아, 사미니리나(Andriambelossa, Saminirina)
소말리아	올링, 베라 키투(Oling, Vera Kintu)	카보베르데		마테우스, 펠리스베르토 알렉산드레(Mateus, Felisberto Alexandre)	
남수단	차니, 호트 토트(Chany, Hoth Tot)	코트디부아르		쿠아오, 카디오 A. 리오넬(Kouao, Kadio A. Lionel)	
수단	엘타히르, 유사프 M. A. 바시르(Eltahir, Youcef M. A. Bashir)	감비아		실라, 아이시(Silah, Aisha)	
탄자니아	오우마, 단칸(Ouma, Duncan)	가나		알레무, 제리훈 구데타(Alemu, Zerihun Gudeta)	
우간다	냐제냐, 보스웰(Nyajena, Bothwell)	기니		도론수, 리치드 안토넬(Dofonso, Richard Antonin), 알노 워보, 비비안 로르(Anno Wafu, Viviane Laure)	
북부	과장	링게레 M. 음바예(Linguere M. Mbaye)		기니비사우	드 리오나 알비노, 자니스텔라(De Liona Albino, Dianystela)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드리 베르디에-슈산(Audrey Verdier-Chouchane)	라이베리아	포데이, 유수프 밥(Foday, Yusuf Bob)	
	알제리	야코, 레옹스(Yapo, Leonce)	말리	티오예, 시에 앙투안-마리(Tioye, Sie Antoine-Marie)	
	이집트	하노라, 아메드(Hanoma, Ahmed), 압테라민-벤 살라, 카우테르(Abderrahim-ben Salah, Kaouther)	니제르	가사마, 카디디아투(Gassama, Khadidiatou)	
	리비아	디아우이, 이마드(Dhaoui, Iyad)와 도론수, 리치드(dofonso, Richard)	나이지리아	라스무센, 피터 영보(Rasmusssen, Peter Engbo)	
	모리타니	사와도고, 이브라힘(Sawadogo, Ibrahim)	세네갈	디아베테, 알라신(Diabaté, Alassane)	
	모로코	엘투ahami, 살마(Eltouhami, Salma), 도론수, 리치드(Dofonso, Richard)	시에라리온	찰레, 프로스퍼(Charlie, Prosper)	
	튀니지	사비, 버니스(Savy, Bernice)	토고	와ذن, 에타키(Wadzon, Etaki)	



주요 내용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 및 전망

아프리카의 경제 성과는 2024년에 개선되었지만, 여러 충격과 증가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대륙 전체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활발한 정부지출과 민간 소비에 힘입어 2023년 3.0%에서 2024년 3.3%로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2024년의 성장률 상승은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29개국에서 나타났다. 특히 앙골라, 가나, 니제르, 우간다를 포함한 10개 아프리카 국가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0%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 가치 하락, 높은 부채 부담이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정학적 분열, 지역 분쟁, 무역정책 변화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는 단기 및 중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사헬 지역, 아프리카 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의 장기화된 분쟁과 맞물린 기후변화의 지속적인 영향은 아프리카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며,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주변국들에게까지 간접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

2025년 1월 이후 세계는 이미 복잡했던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새로운 충격들을 맞고 있다. 이러한 충격의 핵심은 미국이 도입한 대규모 신규 관세와 무역 상대국들이 발표하고 실행한 보복 조치들이다. 급변하는 상황과 커져가는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에 미칠 영향은 미국이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조치의 향후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미국은 아프리카 전체 글로벌 상품 교역량(수출입 합계)의 약 5%를 담당하고 있어, 발표된 평균 10%의 관세율은 AGOA¹ 혜택 대상을 제외한 미-아프리카 무역에 기존 관세에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유예조치는 아프리카의 양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면서 잠재적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관세 조치는 원자재 가격과 금융 자산 가치의 뚜렷한 하락을 야기했다.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이제 2024년 3.3%에서 2025년 3.9%로 가속화되고, 2026년에는 4.0%까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2025년 MEO 전망치 대비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아프리카 실질 GDP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주로 부진한 글로벌 경제 활동이 아프리카의 수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 충격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21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5년에 5%를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4개국(에티오피아,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은 빈곤 해결과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필요한 최소 성장률인 7%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거듭되는 복합적 충격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및 기타 외부 자금 유입 감소 속에서도 일부 아프리카 경제가 보여주는 꾸준한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25년과 2026년 아프리카의 예상 성장률이 글로벌 평균은 물론 신흥 개발도상 아시아를 제외한 여타 지역을 앞설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4월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2025년 2.8%, 2026년 3.0%로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이 성장률이 평균 약 1.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이 2.2%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신흥 개발도상 아시아만이 두 해 모두 4.6%라는 상당히 높은 평균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과 2026년 아프리카의 예상 성장률은 글로벌 평균은 물론 신흥 개발도상 아시아를 제외한 여타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추정 실질 1인당 GDP 성장률은 2023년 0.7%에서 2024년 0.9%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보다 0.5%포인트 낮고, 1인당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아시아보다는 2.9%포인트나 뒤쳐진 수준이다. 아프리카의 실질 1인당 GDP 성장률은 2025년 1.5%, 2026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2025년 2월 전망치에서 각각 하향 조정된 것으로 2025년 전망은 1.8%에서 1.5%로, 2026년 전망은 2.2%에서 1.7%로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반영된 결과다. 1인당 GDP 성장 전망은 현재 진행 중인 충격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더욱 강력한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 가속화를 위해 높고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률 달성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로 남아야 한다.

관세 충격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존 거시경제 완충장치의 강도와 글로벌 무역 통합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역에 비대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성과와 전망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1).

- **중부아프리카.** 2024년 이 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4.0%로, 전년도 4.4%에서 둔화됐다(2025년 2월 MEO 참조). 2025년에는 3.2%, 2026년에는 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MEO 전망치 대비 각각 0.7%포인트와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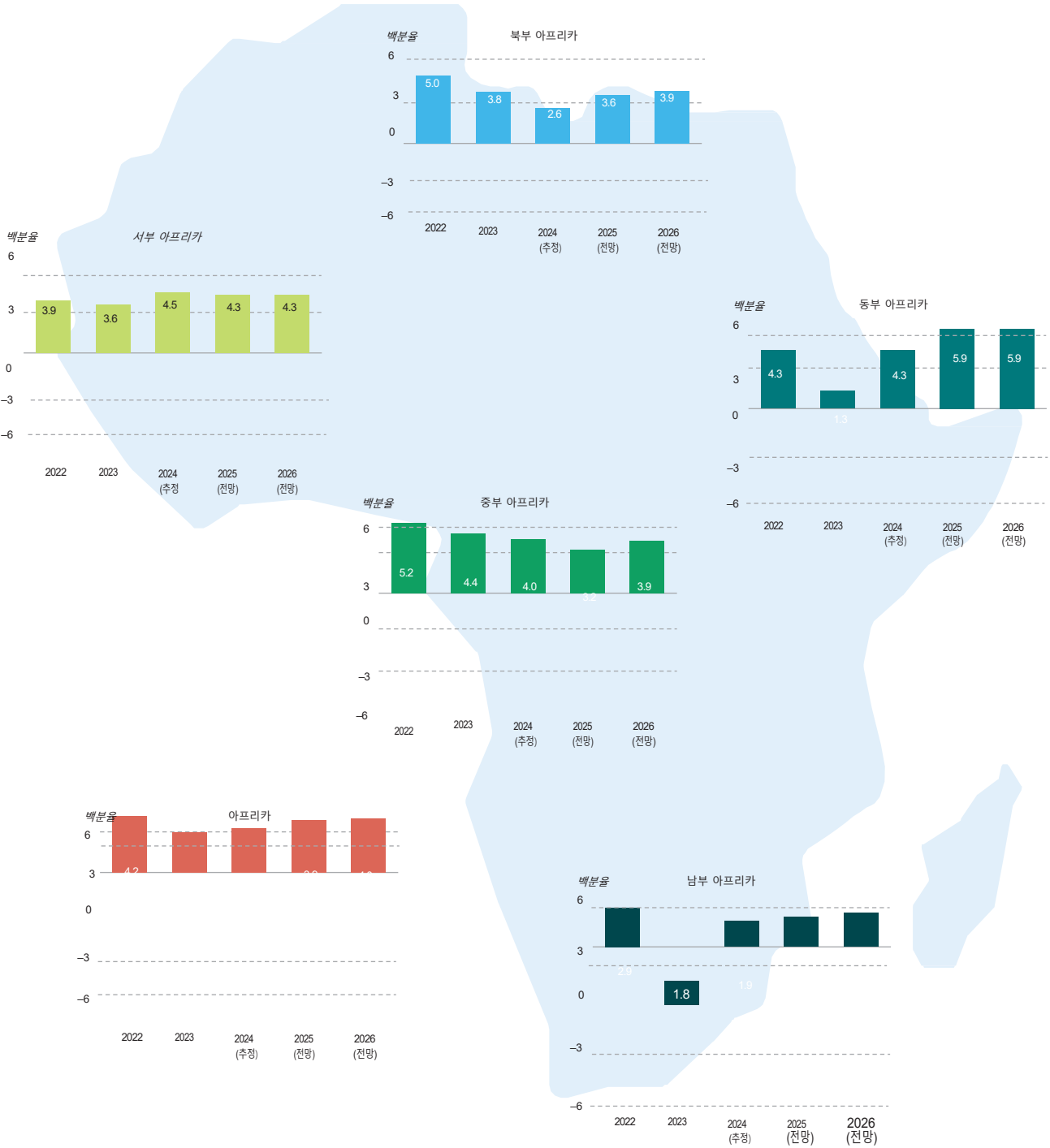
2025년 이 지역의 하향 조정은 모든 국가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 불확실성에 더해, 콩고민주공화국은 동부 지역의 지속되는 분쟁으로, 적도기니는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감소로 각각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 **동부아프리카.** 이 지역의 성장률은 2024년 4.3%에서 2025년과 2026년 5.9%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MEO의 예측치인 5.3%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성장률은 2025년에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반면 2026년에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는 에티오피아, 르완다, 지부티, 우간다, 탄자니아의 회복력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국가는 모두 2025-26년에 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의 성장은 농업 부문의 국내 가치사슬 심화와 국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가 뒷받침하고 있다. 동부아프리카가 충격에 대해 보이는 회복력은 이 지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각화된 경제 구조를 갖춘 곳 중 하나이며, 역내 무역에서 제조업 제품 비중이 증가하고 지역 무역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이 지역 블록의 총 무역은 13.1% 증가한 121억 달러를 기록했고, 동아프리카공동체 총 무역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증가했다.²

- **북부아프리카.** 2024년 2.6%의 완만한 성장에 이어, 이 지역은 2025년 3.6%, 2026년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2025년 MEO 예측치 대비 두 해 모두 각각 0.2%포인트씩 하향 조정된 수치다. 지역 경제 중에서 이집트는 2025년 0.3%포인트, 2026년 0.5%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됐고, 리비아는 같은 기간 0.6%포인트와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주로 수출 수익 감소 가능성 때문이다.
- **남부아프리카.** 2024년 1.9%로 추정된 이 지역의 성장률은 2025년 2.2%, 이듬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22~2026년 지역별 성장 및 성과 전망



출처: 아프리카개발은행 직원 계산

2025년 MEO 대비, 이러한 전망치는 각각 0.9%포인트와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낮은 지역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에스와티니, 잠비아, 짐바브웨)은 2025년에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HIGHLIGHTS

관세
불확실성은
2년간
보츠와나와
레소토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율된 국내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고 식품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보츠와나는 여러 글로벌 충격으로 다이아몬드 가격이 타격을 받으면서 성장 동력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의 불확실성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레소토의 경우 관세가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의류 및 기타 수출품 무역을 직접 위축시킬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5년 0.8% 성장에 그친 후 2026년에는 1.2%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장 전망은 2025년 MEO 전망 대비 2025년 0.9%포인트, 2026년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예상되는 무역 혼란과 함께, 낮은 세수로 인한 예산 집행 어려움과 지속되는 구조적 병목현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기 성장 전망을 제약할 수 있다.

- **서부아프리카.** 2024년 4.5%로 추정된 이 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5-2026년에 4.3%로 소폭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MEO 전망치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나,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2025년에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의 본격 개시(세네갈, 니제르)와 강력한 국내 수요와 지속적인 공공, 민간투자, 주요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코트디부아르, 감비아, 말리, 토고)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교역 파트너들의 수요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맞물려 나이지리아의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으며, 2025년 3.2%, 2026년 3.1%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MEO 전망치 대비 0.3%포인트와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성장 전망은 상당한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충격과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인플레이션은 관세 충격과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 기대심리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체계적인 국내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제약하고 식품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부채 문제 해결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채 구조조정 노력의 가속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입 확대 및 공공지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경제가 높아진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견뎌내고 글로벌 수요를 떠받칠 수 있는 역량 또한 아프리카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으로는 무역 위축이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 감소를 통해 성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증가와 자본 유출로 이어져 금융 및 투자 경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뿌리 깊은 국내 병목현상과 공급 중심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통화정책 효과 약화로 나타나는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예상되는 성장 회복을 위축시킬 수 있다. 지역 분쟁의 장기화와 추가 확산은 아프리카의 저조한 경제 회복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높은 성장률의 성과가 잠식되고 있다. 2024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8.7%를 기록해 많은 국가의 중기 목표치를 웃돌았다(그림 2). 아프리카의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로 국내 식품 공급 충격과 환율 하락의 파급효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국가는 2024년 15개국에 달했다. 아프리카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5년 13.8%, 2026년 9.9%로 둔화될 전망이며, 이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25년 MEO 예측치보다 각각 0.4%포인트와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특히 전년도에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 충격을 겪은 국가들의 양호한 식품 공급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선별된 비회원국)의 증산 결정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통한 농업 생산의 강우 의존도 탈피, 가뭄 저항성 종자 확대 사용,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지원은 기후 변화 취약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2 2025~2026년 평균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국가	실질 GDP		경상수지		재정수지	
	성장	인플레이션				
알제리	3.5	3.8	-1.6	-12.1		
앙골라	3.3	20.6	2.4	-1.9		
베냉	6.6	1.7	-5.6	-2.8		
보츠와나	1.7	3.3	-7.4	-9.0		
부르키나파소	5.3	1.9	-5.1	-5.3		
부룬디	3.8	35.0	-8.5	-4.8		
카보베르데	5.1	1.6	-2.9	-2.1		
카메룬	3.9	3.7	-2.8	-0.4		
중앙아프리카 카고하구	2.3	2.1	-6.7	-2.5		
차드	2.3	3.8	-9.1	-1.4		
코모로	4.3	2.2	-4.6	-2.6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 화국	3.5	3.1	1.5	2.6		
5.0	7.8	-4.4	-2.8			
코트디부아르	6.3	2.6	-2.8	-3.0		
지부티	6.4	2.2	20.7	0.0		
이집트	3.9	19.9	-5.3	-6.2		
적도기니	-1.9	2.5	-3.9	-1.4		
에리트레아	3.3	5.0	13.0	-3.0		
에스와티니	5.6	4.4	2.0	-2.1		
에티오피아	7.5	13.5	-1.5	-1.8		
가봉	2.2	2.0	1.7	-3.9		
감비아	5.4	7.9	-2.2	-1.5		
가나	4.6	12.3	2.0	-3.3		
기니	5.8	6.5	-9.2	-2.3		
기니비사우	5.7	2.3	-4.3	-2.6		
케냐	4.9	4.2	-3.2	-4.5		

국가	실질 GDP		경상수지		재정수지	
	성장	인플레이션				
레소토	0.8	4.9	-5.8	0.0		
라이베리아	5.3	7.8	-18.8	-3.0		
리비아	4.9	3.6	6.7	4.7		
마다가스카르	3.9	6.9	-6.3	-3.9		
말라위	3.4	19.8	-17.4	-9.0		
말리	5.8	2.5	-4.5	-2.6		
모리타니	4.7	2.3	-7.9	-1.0		
모리셔스	3.0	2.8	-4.8	-5.8		
모로코	3.8	2.1	-2.3	-3.4		
모잠비크	3.1	5.0	-38.3	-4.9		
나미비아	3.2	4.0	-16.0	-3.0		
니제르	6.6	4.4	-5.4	-2.9		
나이지리아	3.1	21.0	4.3	-4.1		
르완다	7.7	4.8	-12.1	-4.7		
상투메프린 시페	3.6	8.2	-5.6	1.9		
8.7	2.3	-9.1	-7.4			
세네갈	3.6	2.3	-8.5	-1.1		
시에라리온	4.6	17.4	-4.7	-3.5		
소말리아	4.0	4.1	-7.9	-0.5		
남아프리카공 화국	1.0	4.6	-1.8	-4.8		
남수단	8.1	36.7	-4.6	2.0		
수단	0.4	73.3	-8.2	-3.7		
탄자니아	5.9	3.3	-3.0	-3.0		
토고	5.8	2.3	-3.1	-3.3		
튀니지	2.1	6.3	-2.7	-5.1		
우간다	6.8	4.1	-6.6	-5.7		
잠비아	6.1	9.9	-0.1	-3.6		
짐바브웨	5.0	16.6	1.6	-0.7		

주석: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퍼센트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GDP 대비 퍼센트로 표시됨. 이 히트맵은 선별된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각국의 전망을 나타냄. 국가들은 세 가지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짐: "녹색"은 우수한 성과, "노란색"은 보통 성과, "빨간색"은 저조한 성과. 실질 GDP 성장률 5% 이상은 녹색, 0-4.99%는 노란색,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인플레이션율 5% 미만은 녹색, 5-9.9%는 노란색, 두 자릿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경상수지 흑자는 녹색, 5% 미만 적자는 노란색, 5% 이상 적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됨. 재정적자 3% 미만은 녹색, 3-5%는 노란색, 5%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됨.

이와 관련하여, 더욱 탄탄한 농업 공급망 구축과 기후 스마트농업 기술통합에 중점을 둔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의 특별농업가공구역(Special Agro-processing Zones, SAPZs) 프로그램 가속화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대륙 전반의 재정 적자 확대도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한 후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 팬데믹의 여파가 줄어들고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급속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 건전화 조치를 시행했다.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긴축 정책을 펼친 가나, 에티오피아, 잠비아가 대표적인 예다. 재정 적자가 서서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높은 기초 적자 때문에 그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아프리카 평균 재정 적자는 2023년 GDP의 4.4%에서 2024년 4.7%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로 기초 적자가 GDP의 1.6%에서 2.2%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2024년 GDP의 1.8%에서 2025-26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악화 예상은 2025년 2월 MEO 예측보다 0.1%포인트 더 큰 폭이다. 이는 주로 글로벌 경제 약화로 인한 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때문이다. 높은 관세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무역 여건이 경색되면서 수입은 제약받을 수 있지만,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수출 위축으로 인한 직접적 타격이 대외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주로 무역 갈등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큰 타격을 받은 국가들과 무역 연관성이 높은 제3국을 통한 부차적 효과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 영향을 감안할 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수출 수익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24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율 압박이
완화되었다.

기초 적자 확대는 여러 국가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평균 재정 적자는 2025-26년 2024년 대비 GDP의 4.5%로 소폭 줄어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MEO 예측치보다 0.4%포인트 높고 거시경제 수렴의 통상적 목표인 GDP 대비 3%를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다. 앞으로 현재의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통화들은 더욱 심각한 절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환율 압박이 완화되고 있지만 양상은 혼재되어 있다. 2024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율 압박이 완화되었다. 2023년 통화 절하를 겪은 28개국 중 17개국(60% 이상)이 손실을 만회하거나 절하율 둔화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와 케냐 실링은 2024년 각각 0.7%, 3.1% 절상되며 손실을 되돌렸다. 남아프리카 랜드는 국민통합정부 구성 이후 반등했다. 케냐 실링은 2024년 6월 만기 유로본드의 성공적인 상환 이후 시장 심리 개선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으로 혜택을 받았다. 절상에서 상당한 절하로 전환된 기니, 모리타니, 세이셸의 자국 통화를 제외하고는, 2023년에 안정적이거나 절상을 보인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했다. 이는 특히 CFA 프랑, 카보베르데 에스쿠도, 상투메프린시페 도브라, 코모로 프랑의 경우 두드러지며, 이들은 모두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아프리카로의 대외 자금 유입이 2023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요 공여국들의 원조 삭감 확산과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효과가 맞물려 단기, 정기적으로 유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로의 총 대외 자금 유입(외국인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공적개발원조, 송금)은 2023년 7.3% 증가한 2,04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13.2%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이 수치는 해당 연도 대륙 GDP의 약 7%에 해당한다. 대외 유입 증가는 포트폴리오 순 유출의 대폭 감소가 견인했다. 2023년 포트폴리오 자금은 231억 달러 순 유출에서 3억 2,290만 달러 순 유입으로 전환되어 100% 이상 개선됐다. 반면 아프리카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하락세를 반영해 2023년 3.4% 감소한 526억 달러에 그쳤다.

2023년 아프리카에 대한 총 공적개발원조(ODA)도 약 3% 감소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로 주로 변화하는 글로벌 원조 환경을 보여준다. 2023년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총 ODA는 359억 달러였으며, 이 중 40%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를 통한 미국 주도의 예상 및 발표된 원조 삭감으로 2025년 아프리카로의 ODA 유입은 2023년 대비 약 7%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의 가장 안정적인 대외 자금 유입원인 송금은 2023년 6.2% 줄어든 9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의 증가세를 뒤바꾼 것으로 평가절하 효과가 원인일 수 있다.

공공부채 비율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2015-2019년 약 50% 수준이었던 팬데믹 이전 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 건전화 노력의 부채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출 합리화와 세수 확대 등의 정책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2024년 부채 대비 GDP 비율 중간값은 2023년 66.3%에서 내려간 약 65.5%로 추정된다. 부채 비율은 2025년과 2026년 65% 미만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상업차입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높은 채무상환비용을 동반하는 미 달러 표시 부채여서 아프리카의 부채 부담은 여전히 주요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2025년 대외부채 원금 상환만으로도 6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총 채무상환액의 약 69%에 달한다. 부채 대부분이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상업 대출기관에 대한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은 대륙의 유동성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때 지불하는 이자는 세계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 같은 다자개발금융기관 차입 시 달성 가능한 금리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부채도 2010년 총 공공부채의 32%에서 2023년 39%로 늘어났다. 아프리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자본시장 발전은 현지 통화 부채시장 기회를 만들어내고 각국의 대외부채 및 외환위험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 발행을 통한 국내 차입이 금리를 밀어올려 상업은행들이 위험은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국채 자산에 투자하기를 선호하면서 민간 부문 대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시스템적 부채 위기 위험은 대체로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구조조정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부채 위험에 노출된 국가 수가 안정화되고 있다. 2021년 이후 부채 위기 상태에 있는 국가 수는 2025년 3월까지 7-9개국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감비아와 가나는 부채 위기 등급에서 고위험 부채 위기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확산되는 무역전쟁은 해외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취약성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역내 무역과 경제 다각화를 가속화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즉, 아프리카 역내 시장은 물론 아시아,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중동, 유럽연합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의 잠재적 무역 파트너로 무역 방향을 바꿔야 한다. 심화되는 무역전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AfCFTA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지역 무역 및 비무역 장벽을 없애며 경제 다각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존의 오랜 협정들을 실제로 작동시킬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전략과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경제 외교를 심화하고 대륙 내 상품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의정서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외 파트너와의 무역 이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아프리카가 다른 국가들에서 우회된 대량 수입품의 집결지가 되는 덤핑 위험을 막기 위한 국가 간 효과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부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 회복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그 설계와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이다.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된 관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통화정책 수단들은 특히 식품과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는 통화정책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 금융시스템이 잘 발달되고 강력한 전달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정정책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긴축 통화정책이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때는 새로운 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은행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같은 거시건전성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 **재정 건전성, 부채 생산성, 거버넌스, 그리고 제도 개혁은 여전히 필수 과제다.** 부채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 성장이지만,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부채 상환 부담이 높은 국가에서는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와 핵심 성장 촉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경기 상황에 따라 무작정 삭감해서는 안 된다. 국내 재정 규칙과 재정위원회 설립, 기존 부채관리청 강화는 재정 및 부채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정부에 정보에 기반한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명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이 출범시킨 아프리카부채관리자이니셔티브네트워크와 아프리카부채관리포럼은 국가 간 상호 학습과 정책 조화를 위한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높이려면 국제사회의 확대 지원을 통한 양허성 금융 확대가 시급하며,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이 지역 회원국 대출 확대를 위해 대차대조표 활용 방안을 더욱 적극 모색해야 한다.
- **유연한 환율 제도의 도입.** 잦은 충격과 그에 따른 자본 흐름 역전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은 특히 외부 충격³ 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정부들은 외환 수익과 보유고 확충을 위해 투자와 수출에 대한 부문별 및 기타 금융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이는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파괴적인 자본 흐름이 금융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 개입을 정책 대응 수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아가 신뢰할 만하고 투명한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축적을 억제할 수 있다.

-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과 개혁.** 가나와 잠비아의 현재 성과는 부채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면 국가들의 부채 위기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G20 공통 프레임워크 하의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은 더 많은 국가들이 부채 위기와 디폴트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채 위기 국가들이 전략적 위기 대응과 부채 구조조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한편, 다자개발은행과 국제사회는 진행 중인 부채 이니셔티브의 신뢰성 보전을 위해 공정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더욱 조율된 부채 처리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 금융 체계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더욱 민첩하고 적합하게 대응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이 부채 위기 추락을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과 중기 부채 구조조정 전략은 정책 입안자들의 일상적인 부채 관리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사후 대응적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 **원조 의존도 감소.** 현재의 원조 삭감과 개발원조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아프리카 정부들은 재정 자율성과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원조 비중을 줄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심 전략으로는 세계 현대화와 허점 봉쇄를 통한 국내 세입 확충, 불법 자금 유출 차단, 공공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국내외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친화적 정책 추진 등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2장과 3장 참조).

부채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 성장이지만, 재정 여력이 제한되고 부채 상환 부담이 높은 국가에서는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과 해결:** 국내 분쟁과 불안정은 피해 국가들이 인적자본, 농업, 인프라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생산성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세원의 일부를 파괴하여 정부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군사비 지출을 늘린다. 평균적으로 분쟁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들보다 약 2.5%포인트 낮으며, 1인당 GDP에 대한 누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⁴

분쟁과 불안정은 또한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투자를 저해하며 무역 흐름을 차단하여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국내 분쟁과 불안정은 지역적 차원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그 영향이 인근 국가들로 확산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과 안보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투자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취약점이 대규모 분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위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성장의 배당금을 공유하는 것은 포용적인 국가 의제와 공존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경제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 **핵심 부문 민간투자 동원:**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효율적인 정부 부채 조달 공공투자는 사업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공공 인프라 투자는 혁신과 기술 파급효과를 촉발하고 경제를 민간 참여에 개방해 변화와 경제 다각화 속도를 높일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성장에 연쇄 타격을 가해온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각국의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가치사슬에 대한 민간투자는 식품 생산을 늘리고 가공·부가가치를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 수입 의존도를 줄여 국가의 귀중한 외환을 절약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유국의 석유제품 국내 정제 능력 개선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유가 변동성에 대한 아프리카의 취약성을 줄이며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현지화 및 우선조달 정책:** 아프리카의 중소대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를 장려하는 현지화 및 우선조달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규모 기업들과의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시장 심화를 촉진하며, 비교우위와 경쟁우위에 기반한 제조업 제품의 역내 무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반복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⁵ 예를 들어, 각국은 최소 합의를된 비용과 품질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제조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공공조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역내 무역 촉진, 글로벌 무역 충격에 대한 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의 생산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통합, 경제 회복력, 글로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 **식량 주권 강화:** 식량 가격 급등, 공급망·물류 차단, 환율 하락 등 반복되는 복합 충격은 식량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가하고 아프리카 빈민 대다수가 접근할 수 없게 만들며, 이는 경제적·식량 주권 부재의 명확한 증거다. 식량 주권 개선은 지역사회가 더욱 지속가능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자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특히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충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물 수확 및 관리 같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조율된 정책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지원하는 특별농업가공구역(SAPZ)은 각국이 농장 관리, 저장, 유통, 마케팅, 수확 후 손실 방지를 개선하는 식량 시스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공공 인프라 투자는 혁신과 기술 파급효과를 촉발하고 경제를 민간 참여에 개방해 변화와 경제 다각화 속도를 높일 것이다.



AfCFTA 이행

가속화하는 것은

AfCFTA 이행 가속화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더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프랜차이즈 정책.** 프랜차이즈 정책 추진은 국가들이 현지화 정책을 보완하고 외국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며, 아프리카 국가 간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미가공 원자재 무역의 환경적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천연자원 부국들은 무차별적인 채굴과 미가공 1차 제품 무역보다는 지역 및 역내 시장에서 천연자원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현지화, 우선 조달, 프랜차이즈 정책을 조합해 활용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국이 비교 자원 우위를 파악하고, 생산 가치사슬을 따라 국내 역량을 키워 점진적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를 위한 기술 향상,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고 자국 상황에 적합한 프랜차이즈 모델에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 **지역 경제 통합과 무역.**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 지역 통합 심화와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의 완전한 내재화와 이행이 시급해졌다. AfCFTA 이행을 가속화하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회복력을 높이며 반복되는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산업정책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된다면, AfCFTA는 아프리카 국가 간 산업화, 일자리 창출, 투자를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국제 개발 금융 동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어려운 대외 금융 환경과 특히 녹색 전환에 따른 증가하는 자금조달 수요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렴한 장기 개발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더욱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2024년 아프리카 경제전망에서 다룬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과 개발을 위한 금융조달 같은 국제 플랫폼은 글로벌 공동체가 아프리카의 핵심 성장 촉진 및 기후 회복력 부문 투자를 위한 저렴한 금융 제공에 지속적인 지원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및 대륙 통합은 연대를 구축하고 글로벌 금융 및 부채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집단적 목소리를 키울 것이다. 집단적 목소리 유지는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 활용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재분배 같이 각국의 재정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금융 혁신에 대한 글로벌 지원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이다.

국내 자본 동원과 효율적 활용

아프리카의 성장은 다양한 글로벌 및 국내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탄탄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는 더디고 불균등했다. 지난 4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8%로 개발도상 아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아프리카연합의 아젠다 2063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관한 2030 글로벌 아젠다의 목표 달성을 위해 5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필요 성장률 7-10%에는 못 미친다.⁶

아프리카의 더딘 사회경제적 변화 속도는 여전히 역설적이다. 빈곤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천연자본, 인적자본, 비즈니스 자본, 금융자본을 포함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급속한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세계 전체 광물 매장량의 30%, 세계 미경작 농지의 65% 이상, 6억 2,4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 그리고 나일강(1위)과 콩고강(9위) 같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들을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 또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인구의 60% 이상이 25세 미만이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한 자원과 지출의 거의 80%를 국내 자원으로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정부 수입 대비 GDP 비율은 다른 지역에 뒤처져 있다. 국내 수입으로 조달되는 공공 지출 비중은 2015년 72.5%에서 2023년 약 78%로 늘어났지만, 아프리카의 국내 창출 수입은 같은 기간 GDP 대비 2.3%포인트 소폭 증가에 그친 19.8%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의 정부 수입 대비 GDP 비율은 유럽·중앙아시아(41.0%),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28.6%), 동아시아·태평양(26.2%)보다 낮지만 남아시아(17.9%)보다는 약간 높다.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아프리카로의 공적개발원조(ODA) 유입은 2021년과 2023년 사이에 꾸준히 감소했으며, 아프리카 개발 자금 조달에서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락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유입액은 2020년 GDP의 2.6%(2010년 이후 최고치로 주로 해당 연도 코로나19 관련 개발원조 반영)에서 2023년 2.1%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의 선진국만이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ODA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여국들은 대폭적인 자금 삭감을 발표했다. 공여국의 국내 정책 우선순위 변화로 촉발된 이런 원조 삭감은 예산을 국제 개발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에게 자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보다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자본 자산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풍부하고 다양한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과 함께, 대륙에서 자원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신중한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세계 최후의 개발 프론티어"를 약속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 의존과 시혜적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자립과 토착적 개발 해법을 촉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의존은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아프리카의 자본이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은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는 세금 및 비세금 수입원에서 그리고 자원 누출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에서 추가로 1조 4,300억 달러를 동원할 수 있다. 국내 추가 자원 동원을 위해서는 자원 부존량을 활용하는 중요한 개혁이 요구된다.⁸ 예를 들어, 불법 자금 유출과 부패를 억제하고 이익 이전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국가 위험 평가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아프리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 누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나은 데이터 수집, 이러한 유출을 추적·모니터링·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개 보고 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자본 동원 및 활용

아프리카에서 추가적인 국내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지출 효율성 격차가 39%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공공지출 비효율성은 유럽 17%나 아시아 29%와 같은 다른 지역 평균보다 높다.⁹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 취약한 거버넌스는 부패와 불법 자금 유출로 이어진다. 잘못된 프로젝트 선정은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생산성과 개발 효과를 떨어뜨리고 지연을 야기하며 비용 초과를 발생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비율의 부실 채권을 초래한다. 그리고 개발 효과가 가장 적은 프로젝트들은 부적절한 프로젝트 준비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로 인해 가능해진다.

국내 추가 자원 동원을 위해서는 자원 부존량을 활용하는 중요한 개혁이 요구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출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자본 사용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첫 번째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제공 지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부문에서 공공투자의 개발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종합 평가한다. 이 지수를 통해 국가들은 공공서비스 제공 성과를 추적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자원의 배분과 효율적 사용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다음은 아프리카가 개발을 위해 국내 자본을 동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첫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제공 지수는 개발 효과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세입 동원(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DRM)의 효율성을 높이면 상당한 재정 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세정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면, 아프리카는 2025~29년 동안 연간 4,694억 달러(GDP의 14.4%)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세입으로 아프리카의 세입 대비 GDP 비율은 구조적 전환 가속화에 필요한 추정 중간값 27.2%보다 약간 높아진다.¹⁰ 아프리카와 비슷한 여러 DRM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LAC)의 평균 세입 대비 GDP 비율은 아프리카보다 높다. 따라서 DRM 조치를 통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최소 비용으로 아프리카에서 상당한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대대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개혁을 시행하고,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을 강화하여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높이며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 **국민계정체계(Systems of National Accounts, SNA)를 업그레이드하고 대륙 전체에 환경경제회계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면 각국이 자연 자본과 생태계 서비스를 국민계정에 통합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비공식 경제가 전체 경제의 최대 65%를 차지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식 SNA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 부문 활동과 아프리카 천연자원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국가 통계를 업그레이드하면 아프리카 GDP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추정에 따르면 탄소 흡수만 고려해도 2022년 아프리카 명목 GDP는 661억 달러 더 높을 수¹¹ 있었으며, 이는 산출량의 약 2.2% 증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수적 추정치는 비공식 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방대한 천연자원의 가치를 고려하도록 SNA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아프리카 경제 규모를 크게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부채 대비 GDP 비율을 낮추고 부채 취약성 위험을 줄이며, 저비용 장기 개발 금융 동원을 위한 더 큰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SNA를 2025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자연 자본 회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통계 역량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 **블루 이코노미 투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블루 이코노미 개발 자원을 보유한 37개국을 두고 있다.¹² 아프리카 블루 이코노미는 2030년 4,0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 관광에서 1,000억 달러를 창출하고 5,7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공공 부문 역량을 구축하고 경제적 이익을 장기 지속가능성과 연계하며, 수산업과 생태관광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블루 이코노미만으로도 1,0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상당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 **녹색 광물 가치사슬에 대한 투자.** 아프리카는 코발트, 구리, 리튬, 망간 등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광물을 포함하여 전 세계 총 광물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자원에서 잠재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수입의 평균 40% 정도만 확보하고 있다.¹³ 이러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현재의 원료나 반가공 형태로 채굴하여 미국이나 중국 같은 원거리 국가의 생산 및 제조 공장으로 수출하는 모델보다 3배 더 저렴할 수 있다.¹⁴

글로벌 코발트 매장량의 55%, 세계 망간 매장량의 48%를 포함한 방대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녹색 전환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배터리 저장 및 전기차 가치사슬만으로도 2050년까지 56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이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려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 주도 산업화와 혁신을 위한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교통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함께 향상된 부가가치 창출과 고도화가 필요하다.¹⁶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가공과 배터리 제조에 투자하면 연간 320억 달러의 추가 수출을 창출하고, 연간 GDP에 240억 달러를 추가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2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천연 자원의 적절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도화는 콩고민주공화국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수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료 보크사이트를 현지에서 알루미늄으로 가공하면 가치가 톤당 65달러에서 2,335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지 조달, 우선 구매, 프랜차이징 정책을 시행하고 미가공 녹색 광물을 거래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이러한 천연자원의 매우 비효율적인 사용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엘리트 포획을 조장하고 부패와 불법 자원 유출을 장려하기 쉽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에 해롭다.

-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자원 소유권과 주권 강화.**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 자원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생산성 성장을 견인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잘못 설계된 광업 조차 협정을 통해 천연자원의 법적 소유권을 외국 기업에 이전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 법률에 명시된 광물 개발 협정(Mining Concession Agreement, MDA)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시민들에게 지분을 제공하고 자원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약탈과 담보 제공을 방지할 것이다. 자원 주권은 국가들이 국내외 투자자(공공 및 민간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윈-윈 상황을 제공하는 광물 개발 협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랜차이징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지분을 제공하고 자원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약탈과 담보화를 방지할 것이다. 자원 주권은 국가들이 국내외 투자자(공공 및 민영화된 국내 이익)에게 윈-윈 상황을 제공하는 MDA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랜차이징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우선 구매 정책은 아프리카 전역의 천연자원 부문을 지배하는 외국 기업들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MDA에서 국내 투자자와 공급업체를 합이된 비율까지 우선시해야 한다.

- **인적 자본 개발, 유지, 효과적 활용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가속화는 생산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다.** 2022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아프리카 노동력을 증가시키면 1인당 소득이 0.13%포인트(약 92달러) 추가로 증가하거나 아프리카 GDP에 약 470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튀니지 경제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이익은 인적 자본 개발과 과세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소비 지출 파급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개인들의 이민은 기술 측면에서나 "세수 누출" 즉, 해외에서의 그들의 전문 활동으로부터 상실된 수입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의미한다.
- **디아스포라 채권을 통한 송금 증권화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연간 300억 달러의 잠재 자본 중 일부를 동원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2025년에 약 1,000억 달러의 송금 유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 송금 시장은 2035년까지 최소 2,830억 달러에 달해 2023년 대비 3배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송금 비용으로 인해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이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식 채널 자원 이전의 35~75%에 이르며 아프리카는 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⁷ 유엔에 따르면, 송금 비용을 2023년 약 7%에서 2030년까지 3%로 줄이는 것(SDG 유엔 의제에서 설정한 목표)은 비공식 이체를 공식 송금 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 자원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생산성 성장을 이끌고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AfCFTA의
완전한 이행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재정립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
경제를 재편할
것이다.

송금 비용을 SDG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지역·글로벌 협력은 비공식 이체를 공식 채널로 유도함으로써 2035년까지 연간 송금을 약 5,000억 달러로 늘릴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추정치에 따르면 공식 송금의 최대 30%가 여유 자금으로 남아 현지 투자와 개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¹⁸

- *아프리카 기업들이 비공식 활동에서 공식 활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1,253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절차와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을 강화하면, 아프리카는 현재 50~65%로 추정되는 비공식성을 줄여 세입 징수를 늘릴 수 있다. 비공식 부문 과세는 주로 비공식 활동의 불투명성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공식화가 더 큰 자원 동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내 일부 사례들이 귀중한 교훈을 준다. 케냐의 상대적으로 발달한 정보기술 시스템은 적절한 세금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케냐 국세청은 2016년 세금 절차가 완전히 디지털화된 후 2016/17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거두었으며, 이는 연간 12.7% 증가한 것이다.¹⁹
- *생산성 개선을 통해 비공식성을 줄임으로써 잠재적 수입과 산출 이익을 높인다.*²⁰ 전 세계적인 증거에 따르면 비공식성을 10%포인트 줄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GDP 성장률을 연간 1~2% 높일 수 있다.
- *지역 가치사슬 강화와 아프리카 통합 심화는 잘 활용하면 아프리카 비즈니스 자본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AfCFTA 완전 이행은 아프리카 통합을 재정립하고 대륙의 비즈니스 자본과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 경제를 재편할 것이다. 제조업 활동, 무역, 소득 증가의 수입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 AfCFTA 완전 이행은 아프리카 수출을 5,600억 달러 늘릴 것이며, 대부분 제조업 분야로, 2035년까지 대륙의 실질 소득을 4,5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다(7% 증가로, 아프리카 빈곤 해결에 필요한 최소 GDP 성장률).²¹

- *현지 통화 금융의 위험을 줄이고 적자 금융 감소를 통해 국내 자본 비용을 낮추는 것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현실과 개발 필요에 맞으면서 환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국내 통화 부채 비중을 늘리면 2025~2030년 동안²² 외화 부채 증가를 약 886억 달러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기간 교육 분야 예상 자금 조달 격차의 약 35%에 해당한다. 또한 현지 통화 채권은 연금기금과 보험료 같은 기관 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6대 국가 연금기금 운용자산의 1%를²³ 개발 금융에 할당하면 연간 7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연간 4,020억 달러 구조적 전환 자금 조달 격차의 약 17%에 해당한다.
- *국내 투자를 허용하도록 세대간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 배분 규칙을 개혁하면 개발 금융을 위한 추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펀드들은 주로 선진국 국제 중심의 저수익 유동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펀드를 보유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금융시장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하면서 자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의 일정 비율을 아프리카 금융시장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펀드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 담보 대출로 경제를 저당 잡히게 하기보다는 자원 지대의 일정 비율을 전용 투자에 배정하여 개발 금융 동원 잠재력을 활용하는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 기여를 최적화하려면 이들 펀드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민간 부문 인센티브가 의사결정을 이끄는 가운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 *지역, 소지역, 국가 개발금융기관의 자본을 이용한다.* 아프리카의 국가개발은행(national development banks, NDB)과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렉심은행 같은 다자금융기관(multi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MFI)은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들을 활용하여 장기 금융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사회채권, 대차대조표 최적화, 합성 증권화, 위험 이전 거래, 금융시장 자금 조달원 다변화 같은 혁신적 금융 수단을 활용하면 NDB와 MFI가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동원하고 민간 부문 금융을 끌어들이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²⁴

예를 들어, 아프리카개발기금 지분을 활용하면 아프리카개발은행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각 재원보충 주기마다 53억 달러의 추가 금융을 창출할 수 있다.²⁵

2018년과 2022년²⁶ 사이 연간 5%의 동일한 복합연간성장률을 가정하면, 아프리카 NDB만으로도 총 자산이 2030년까지 2,91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것이 장기 개발에 완전히 투입된다면 2022년 대비 895억 달러의 추가 대출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트리플 아젠다 보고서의 G20 추정치에 기반한 효율성 조치는 이 능력을 40% 또는 약 358억 달러 더 높일 수 있어, 2030년까지 총 1,253억 달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전역의 장기 금융 동원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은행 대출의 양허적 창구인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ADF)은 2022년 세계 최고의 양허적 금융기관으로 평가받았다.²⁷ 아프리카 개발금융기관에 적절히 자본을 투입하면 아프리카 개발 금융을 위한 부채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재정 자원의 국내 동원에서 농친 기회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원된 자원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최적의 개발 효과를 위해 필수적이다.

- *자본 도피와 기타 불법 자금 유출을 통해 현재 손실되고 있는 국내 자원 보존.* 아프리카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900억 달러를 불법 자금 유출로 잃고 있다.²⁸ 다국적 기업의 이익 이전으로 인해 연간 2,750억 달러가 추가로 손실되고, 부패로 인해 1,480억 달러(GDP의 25%)가 손실된다.²⁹

아프리카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740억 달러의 잠재적 절약을 더하면, 아프리카의 총 자본 누출은 연간 5,87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징수된 수입 5,781억 달러보다 많다. 반면 총 외부 금융 유입은 2022~2023년 동안 연평균 1,968억 달러에 불과해 3,902억 달러의 순 외부 자원 유출로 이어져 아프리카를 "세계의 순 채권자"³⁰로 만들고 있다. 최근 미국이 USAID를 통해 주도하는 주요 공여국들이 상당한 자금 지원 삭감을 발표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순 자본 유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아프리카가 개발을 위한 국내 자원의 동원, 보존, 사용을 위해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오랜 필요성을 보여준다. 외부 자원 유입은 아프리카 개발 금융의 주요 원천이 아닌 보완책일 뿐이다. 따라서 누출을 막는 내생적 정책 조치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 지출 없이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 사용 효율성 개선.* 아프리카의 추정 조세 역량인 GDP의 20%와 현재 조세 수입 대비 GDP 비율인 16.2% 사이의 격차는 수정하면 상당한 추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세입 징수의 비효율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현재 수입 수준과 자원 배분으로도 아프리카는 단순히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훨씬 더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과 2018년 사이 아프리카의 교육 공공 지출 효율성은 초등교육 58%, 중등교육 41%로 추정되었다. 최고 성과를 보인 동료 지역의 지출 효율성 수준을 높이면 아프리카는 거의 보편적 초등학교 등록을 달성할 수 있으며, 등록률을 79%에서 98%로 높일 수 있다.
- *사회 기반 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출 합리화와 비용 분담을 통한 보건 지출 효율성 향상.* 중간 소득 하위 국가들의 효율성 수준에 맞추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 5년의 기대수명 연장을 얻을 수 있으며, 중간 소득 상위 국가들의 효율성에 맞추면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혁신적 금융 수단을 활용하면 국가개발은행과 다자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보편적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는 비용 부담 체계를 통해 비용 초과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인적 자본 측면 외에도, 추정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공공투자 효율성을 최대 39%까지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재정 자원 사용의 성장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³¹ 각국은 또한 국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천연자원의 관리와 사용에 지역사회 참여를 늘림으로써 천연자원의 불법 채취와 착취로 현재 손실되고 있는 상당한 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자원 사용 효율성을 개선할 기회는 매우 많으며 여기서 강조한 몇 가지 사례를 훨씬 넘어선다.

개발을 위한 자본 잠재력 활용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자본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대담하고 조정된 자생적 정책 행동이 필요하다. 세정 관리와 비세수 징수 개선, 인적 자본 개발, 두뇌 유출 억제, 기술 인력 보유, 디아스포라 송금 활용, 아프리카 기업의 공식화, 아프리카 개발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기관투자자와 국부펀드의 역량 활용 등이 모두 매년 상당한 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자원 누출을 막고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여 동원된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정책 행동은 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내 자원 동원, 유지 및 효율적 활용

- **조세정책 개선 및 세정 관리 효율성 제고:** 세정 관리의 디지털화, 세원 확대 정책, 세무 행정관의 역량 강화, 세수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 강화를 통해 세수 징수를 늘린다.

특히 천연자원 개발 같은 부문에서 세정 관리를 강화하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전자 신고와 온라인 세금 납부를 포함한 세무 절차의 자동화와 간소화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과 납세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부패 가능성도 줄인다.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 재구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세수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투입하면 자발적 납세 순응을 촉진하고 세원 확대에 도움이 된다.

- **공공재정관리 역량 및 개혁에 투자:** 성장 촉진 투자를 위해 동원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공공재정관리 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국가들 전반에 걸쳐 은행의 공공재정관리 아카데미(Public Finance Management Academy, PFMA) 역량 개발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 **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역량 구축을 통한 누출 억제:** 공공 자원 남용에 대해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불법 자금 유출, 부패, 국제적 이익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금융정보기관을 보유한 국가들은 공식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금 세탁 관련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이 없는 국가들은 부패를 억제할 적절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 등 다른 법 집행기관의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금융정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성공은 불법 자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 파트너 지원을 늘리겠다는 2022년 G7 회원국 약속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실질 소유권 투명성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보 공유에 달려 있다.³² 정부는 또한 비세수를 늘리는 실용적 수단으로 광업 및 기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과 투자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

중저소득국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 5년의 기대수명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세수 동원을 위한 전략적 정책: 지역 무역과 통합 심화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선별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입 관세와 특별 부담금/소비세 같은 비외국적 조치를 부과한다. 새로운 시설의 가치와 납세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 대장과 토지 등기부의 정기 업데이트를 디지털화하면 재산세와 토지세 징수를 개선할 수 있다. 주차비와 탄소 배출 요금도 비세수를 늘릴 기회를 제공한다. 규제 집행과 카르텔 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세수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르텔의 불투명한 교통 조합과 그들의 동료 및 간부들을 해체하려면 규제 집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³³ 징수된 수입의 책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방 사회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지방 부담금과 사용자 납부 불이행 유인을 없앨 수 있다.

- **소득 창출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 자산과 부채의 적극적 관리 개발.** 발생주의 회계 도입은 정부 대차대조표상의 유휴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량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둔 명확한 전략은 자산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임대료나 기타 소득을 늘리기 위해 그런 자산의 데이터베이스와 상업적 가치를 개선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교민들의 소득에 과세: 숙련된 아프리카인들이 대륙 밖 고소득 국가로 이주하는 것은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의 상당한 손실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출신국이 이들 이민자가 해외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여전히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고국에 보답하고 싶어하는데, 많은 경우 고국이 그들의 경력을 형성한 기초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으며 종종 보조금을 받는 비용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주 전 고국에서 받은 훈련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미국에는 210만 명의 아프리카 이민자가 있었다. 평균 가구 규모 3명과 같은 해 중간 가구 연간 소득 58,000달러를 가정하면, 그 소득에 2% 부담금을 부과하면 아프리카에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출했을 것이다. 이 수치는 미국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른 국가와 아프리카 내 이민자들을 고려하면 대륙 개발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세금은 디아스포라에게 강한 소속감과 투표 및 지도자 책임 추궁 같은 국정 참여 권리 의식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려면 이중 과세 위험을 완화하고 각국 디아스포라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고국의 사회보장번호나 주민등록증 같은 고유 신분 확인과 그들의 가구 소득 평가를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시민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운영하는 데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자연 자본 회계, 고도화, 가치사슬 개발을 통한 자원 생산성 향상

-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면서 생태계 서비스를 포함한 자연 자본의 완전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자연 자본 회계와 환경경제회계시스템을 국가 개발 계획과 부문별 전략의 핵심 요소로 만든다.*³⁴ 아프리카의 방대한 녹색 자산을 적절히 평가하고 이 가치를 반영하도록 국민계정체계를 업데이트하면 아프리카 GDP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성공적인 정책 통합을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와 광물 자산의 소유권이 속할 수 있는 통계청, 재정부와 환경부 같은 정책 실행기관,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전체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법이 핵심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의무적 평가를 옹호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의지와 야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 자본 회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전담 자연자본회계 부서를 설립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비세수를 늘리는 실용적 수단으로 광업 및 기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과 투자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금융 부문은 혁신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한다.

- **수익 증대와 더 회복력 있는 다각화 경제 구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도화 역량 개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로열티 같은 세수와 비세수를 늘리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노출을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각국은 원료에 가치를 더하고 수출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현지 가공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코발트를 가공하여 수출 가치를 여러 배로 늘리고 자연 자원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확산하면 대규모 고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자원이 포용적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한 동력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생산 가능성을 확대하고 천연자원의 국경 간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 회량과 지역 광물 가치사슬 개발.** 아프리카 정부들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원소 같은 자원과 핵심 광물에 대한 국경 간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지역 산업화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화된 정책, 공동 인프라, 공통 투자 법규를 활용하여 반가공품의 원활한 이동과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을 허용해야 한다. 가치사슬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 로열티 같은 세수와 비세수를 늘리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노출을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생산성 성장을 이끌고 시민 복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천연자산의 소유권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강화하는 광물 개발 협정 시행.** 아프리카 국가들이 잘못 설계된 광업 조차 협정을 통해 천연자원의 법적 소유권을 외국 기업에 이전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 법률에 명시된 자원 주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급하다. 광물개발협정은 시민에게 지분을 제공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의 채굴 부문을 지배하는 외국 기업의 천연자원 약탈과 담보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공공 및 민영화된 국내 이익)에게 상생 상황을 제공한다.

금융자본 활용을 위한 심화되고 통합된 금융시장 개발

- **금융시장 심화와 아프리카 개발에서 금융 자본의 역할 강화는 국경 간 협력, 조화된 거래법과 회계 기준, 통화 태환성이 필요하다.** AfCFTA와 범아프리카 결제·정산 시스템 같은 기존 지역 통합 체계는 통합된 아프리카 자본시장과 지역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금융 부문은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목적에 맞는 규제 체계를 채택해야 한다.
- **장기 생산 부문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 연금기금, 기타 기관 저축 활용.** 기관 자금의 일부를 국내 시장이나 지정된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아프리카의 낮은 시장 깊이와 자금 조달 필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관 금융의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프로젝트 창출 수익으로 상환할 장기 채권에 연결해야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과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은 현지 통화 채권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런 채권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프리카의 연금기금과 기타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인프라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같은 다자개발은행들의 AAA 신용등급을 활용한다. AfDB의 강력한 실사, 높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그리고 강력한 현지 기반과 대륙 개발 환경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투자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의 안전한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다. AfDB는 이미 국제 펀드 매니저들과 협력하여 전문성과 현지 지식, 그리고 우대 신용등급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기관 자본이 매력적인 재정적·지속가능성 성과를 달성하면서 아프리카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투자자들도 이 모델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에 기여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

•

신흥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은행 기반 금융 개발 모델로 인해 생긴 자금조달 공백을 해소한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규제를 간소화하고 아프리카 벤처캐피탈 투자의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아프리카 다수 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문제와 취약한 제도적 역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벤처 시장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송금과 디아스포라 재권을 혁신적인 자산 클래스로 활용하는 전략적 정책을 채택한다.* 송금 흐름을 증진화하면 개발 금융의 재원을 다변화하고 전 세계 아프리카 공동체와의 국가적 유대를 강화하며 대륙 개발 의제에 대한 공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재권이 성공하려면 수익금이 인프라, 교육, 의료 등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디아스포라의 공감을 얻으면서 동시에 적시 상황을 보장할 수 있는 양호한 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

비즈니스 자본을 아프리카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하기

- *비즈니스 자본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종합적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 자본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자본 투자를 가로막는 한계세율과 규정 준수 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프리카 기업들이 수출에서 지역 및 글로벌 경쟁업체와 경쟁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현지 기업들의 정보 탐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우선 조달, 현지화 정책, 프랜차이징을 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지역 가치사슬을 심화한다.* 각국이 대륙 내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조달하도록 장려하면 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비교우위를 활용하며 회복력 있는 상호 연결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외국 기업과의 신중하게 설계된 프랜차이징 협정은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을 포함하여 최첨단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현지화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현지 기업과 근로자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 *대륙 전체에서 모든 아프리카인의 무비자 입국을 촉진한다.* 아프리카 내 노동 이동성은 지식과 기술, 인재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고용, 기업가정신, 비즈니스 자본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체제 하에서 지역 통합을 심화하려는 기존 의정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아프리카 비자 개방성 보고서(2024 Africa Visa Openness Report)³⁶에 따르면 아프리카 내 여행의 46%가 여전히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아프리카 내 투자 흐름과 기술 이전을 저해한다. 아프리카연합은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인재, 투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모든 장벽을 해소하고 비즈니스 자본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모든 아프리카인을 위한 아프리카 여권 이니셔티브의 실행은 국적을 초월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동 의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자본이 아프리카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아프리카인들이 단합하여 모든 이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 시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인적 자본과 기술 개발

- *아프리카의 가장 큰 자산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적절한 기술을 제공하고 기회를 부여하면 대륙의 인구 배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인재, 투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지원의 수혜자가
아닌 개발의 전략적
주체로서 강력한
승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정책 의제에서 교육을 우선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아프리카연합-다카르 약속'에 따라 공공 지출의 최소 20%를 교육 부문에 배정해야 한다.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정부는 교사 채용과 유지를 추적하고, 급여 명단에서 허위 근로자를 제거하며, 성과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 교육 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기술 및 직업 교육 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디지털 리터러시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 개발 계획이 제시하는 지역 경제 우선순위와 교육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은 기술적·소프트 스킬이 각국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아크라에 있는 구글의 AI 연구소와 같은 글로벌 주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혁신을 강화하고 인적 자본 투자의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 *지원 인프라와 자금조달에 대한 경제적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아프리카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의 4분의 3 이상이 특히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5년 내에 창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생태계의 이 부문에 특화된 금융상품과 청년 친화적 규제를 개발함으로써 청년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육성할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인 청년기업가투자은행(Youth Entrepreneurship Investment Bank, YEIB) 설립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YEIB는 향후 15년 동안 30,000개 이상의 청년 주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여 성 포용성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여성을 인적 자본 개발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일부 아프리카 공동체에서는 문화적 기대가 소녀와 여성들의 고등교육이나 리더십 역할 추구를 저해하는 반면, 일부 종교적 해석은 조혼을 정당화하거나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공동체 지도자들과 종교 기반 및 시민사회 조직들과 협력하여 여성의 역할을 억압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깊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구조적 장벽에 맞서고 도전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지원의 수혜자가 아닌 개발의 전략적 주체로 접근함으로써, 아프리카는 강력한 승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성평등 증진, 경제 성장 가속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 *주요 원인인 열악한 직업 전망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는 조치를 통해 이주와 인재 유출을 흐름을 되돌린다.* 인재의 이주를 억제하거나 아프리카로 다시 유치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는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정부는 포괄적인 직접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신 기술 집약적 기업이나 높은 기술 손실을 겪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같은 핵심 부문에 이를 집중해야 한다. 르완다의 카네기멜론대학교 아프리카 캠퍼스는 선도적인 글로벌 기관들이 젊은 졸업생들의 해외 교육과 취업 기회 추구 유인을 줄임으로써 중요한 인적 자본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아부자 선언(Abuja Declaration)의 목표인 국가 예산의 최소 15%를 보건 부문에 배정하여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건 인프라 개선, 회복력 있는 보건 인력 구축, 서비스 전달 시스템 현대화에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각국은 아부자 선언과 WHO 권고에 모두 부합하는 안정적인 국내 보건 재정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튼튼한 보건 시스템은 장기적인 경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국이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확대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화한다.** 원격의료, 전자보건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특히 외딴 지역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공동체를 위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드론은 현재 탄자니아와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말라리아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효과적인 국내 자본 동원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아프리카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기관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적 지원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규모 국내 자본 동원의 기회와 잠재적 위험 및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모범 사례와 확립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 파트너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원 누수를 차단하고 지출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아프리카의 천연자원과 기타 유형 자산을 미래 성장을 견인할 무형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엘리트들이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부정축재 자원을 추적하고 송환하기 위해 기존의 글로벌 체계와 양자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아프리카 정부 및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와의 협력은 대륙의 자원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리더십과 제도 전반에 걸친 사고방식 전환 촉진

- **아프리카는 의존성, 외국 상품 소비, 그리고 애초에 아프리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라는 기존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 최근 AEO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위험 인식 편향과 결함이 있는 등급 평가 방법론으로 왜곡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 체계는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과 부문에서 자본을 차단하여 부채, 빈곤, 투자 부족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함정을 깨뜨리기 위해 아프리카는 자신감, 경제적 주권, 대륙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아프리카 내 무역, 투자, 혁신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또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제품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를 높이고 개발 파트너들이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필요로 한다.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자본 활용: 제도, 경제 거버넌스, 법치주의의 역할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자본 활용은 자본 전환에 기반한 개발 모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는 한 형태의 자본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효율성을 결정하는 "전환 요인"이다. 양질의 제도를 갖춘 자원 부족에서는 천연자원을 재정 자원과 개발 효과를 배가시키는 장기적 물리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적 틀이 없다면 자원은 부패와 기타 형태의 도난으로 손실될 수 있어 천연자본의 개발적 영향("자원의 저주")을 저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 시스템과 제도적 틀의 질에 따라 증가하는 인구를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전환하거나 인재를 낭비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개혁에 대한 상당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이행 부족은 거버넌스와 제도적 품질의 발전을 계속 저해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식적인 제도(헌법, 부패방지위원회, 준자율적 세무기관)를 수립하고 거버넌스 개선, 제도 강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지역 및 국제 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행은 느리고 단편적이며 선별적이었다.

제도와 거버넌스 구조는 한 형태의 자본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효율성을 좌우하는 "전환 요소"다.

제도적 취약점과 거버넌스 결함은 만연한 부패, 잦은 정책 변경, 정치적 불안정, 열악한 공공 부문 성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국내외 자본의 동원과 효율적 활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 예를 들어, 많은 부패방지기관들은 도난당한 공공 재산에 대해 포괄적인 자산 정의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³⁶

효과적인
제도과 거버넌스
구축 및 법치주의
확립은 평화와 국가
안보의
전제조건이다.

취약한 제도와 낮은 거버넌스 품질은 천연자본과 인적자본을 실질적인 개발 성과로 전환하는 과정이 최적화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과 비효과적인 법률(일부는 식민지 유산을 반영)은 낮은 자본 자산 수익률과 부패 및 자원 누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는 재정 역량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더욱 저해한다. 또한 취약한 계약 이행, 정책 불확실성, 정치적 위험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축시켜 투자 손실(프로젝트 취소와 일자리 감소)을 초래한다.

지속적인 자원 손실은 대륙이 개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아프리카는 불법 자금 유출, 부패, 기타 누수를 통해 막대한 자원을 잃고 있다. 국내 거버넌스와 법치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해외로 자금을 불법 이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서 인프라와 인적자본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본을 빼앗아간다. 이는 결국 불안정한 성장, 만연한 빈곤, 그리고 종종 불리한 조건의 외부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을 고착화시켰다. 여기서 불리한 조건이란 원조에 따른 정책 조건이나 부채의 과도한 자본 비용을 말한다.

취약한 거버넌스와 아프리카 정부 기관 전반의 제도적 결함 속에서 전략적 조정의 부족은 공공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열악한 예산 편성과 정치화된 지출은 제도와 법적 프레임워크의 비효율성을 반영하며, 이는 인프라 예산의 최대 40%까지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낮은 품질의 공공 서비스, 실패하는 교육 시스템, 신뢰할 수 없는 전력 공급, 그리고 파괴된 보건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실패는 시민들의 세금과 부담금 납부 의지를 침식시켜 낮은 수입과 열악한 품질의 공공 서비스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아프리카의 거버넌스와 제도적 도전과제는 감소하는 외부 개발 원조의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정학적 분열과 보호주의 확산의 현 시대에 많은 전통적 공여국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와 양허성 금융을 줄이고 있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더욱 선별적이 되어, 제조업 FDI 비중이 26%에서 13%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투자는 2003년 66%에서 2023년 81%로 증가했다.³⁷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FDI 감소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2024년 평균 2%를 기록했다.³⁸ 아프리카에서 이는 국내 자원 동원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는 인프라 개발, 산업화,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근본적 개선과 제도 강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 구축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평화의 파괴는 종종 경제적·사회적 배제의 결과다. 따라서 둘은 서로 얽혀 있다: 평화로운 환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반면,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소외는 불안과 불안을 야기한다. 효과적인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및 법치주의 확립은 평화와 국가 안보의 전제조건이다.

더 많은 재정 자원 동원

잘 기능하는 제도는 공공 신뢰를 조성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지대추구적 행동을 줄이며, 개발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⁴⁰ 반대로 약탈적 정책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이는 세금 및 기타 수입 창출 조치⁴¹에 대한 시민들의 준수를 감소시킨다.

또한 비효율적인 공공 지출은 정부의 재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⁴¹

제한적인 제도적 역량과 조세 협정 설계 및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운영되는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이익이전(BEPS)이 조장되고 있다. 복잡한 회계 절차와 전문성을 갖춘 이들 기업은 국가 세무기관의 기술 및 행정 역량 부족과 기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대륙에서 자원을 빼돌리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과세가 명확한 경우에도 기업소득세법이 비용 처리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을 과장하여 신고 이익을 줄이고 있다.⁴³

불투명한 국제 조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전(조세 회피와 탈세 형태)은 대륙에 연간 약 2,75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다준다. 이 금액은 2022년 대륙이 공격개발원조, 송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받은 총 1,749억 달러를 넘어선다.⁴⁴

국가포획은 아프리카의 제도적 과제와 취약한 거버넌스 역량을 약화시킨다. 포획된 엘리트들은 세제 혜택, 독점권, 공공 계약 우선권 및 기타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조작한다. 아프리카 전역에는 여러 국가포획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재 자원 권리가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진 기업들(국내외 기업 포함)에게 부여되어 수백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인맥을 가진 인물들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포획이 매우 심각하며, 이는 국가 기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엘리트 네트워크에 의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⁴⁵ 자원 수익에 대한 정부 사용과 같은 경제 정보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 기밀법도 법적 체계가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때로는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한하여 국가포획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⁴⁶

비효율적인 거버넌스 제도는 아프리카에서 취약한 법치 환경을 조성하여 재정 자원 동원을 저해한다. 높은 부패는 시민들⁴⁷ 사이에서 낮은 납세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그 영향은 직접적이면서 간접적이다. 간접적 영향은 정부 당국의 부패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세무 당국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때 나타난다.⁴⁸ 반대로 행정부의 다양한 단계에서 부패가 적다는 인식은 납세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⁴⁹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한 국가들은 또한 정부의 서로 다른 부처 간 권력 분립과 같은 법치에 대한 존중을 누리고 있다.

취약한 거버넌스와 법치의 제도화는 국가 효율성과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공권력에 대한 처벌 면제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기관에 대한 공공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취약점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악용하는 거버넌스 공백을 증폭시킨다. 아프리카에서 취약한 거버넌스와 저품질 제도와 크게 연관된 불안정성과 갈등의 지속은 경제 발전과 회복력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을 나타낸다. 이러한 갈등은 세수원을 파괴하여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는 반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희생하여 군사 또는 안보 지출을 증가시킨다.⁵⁰

효과적인 제도, 경제 거버넌스, 법치 강화는 아프리카의 자본 동원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도의 효과성, 경제 거버넌스, 법치주의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개혁을 실행하려면 조정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다음은 아프리카의 자본 자산 동원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주요 조치들이다.

제도, 거버넌스, 법치 강화

-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 높고 다중적인⁵¹ 세금은 기업 창업을 둔화시키고, 생존 가능성을 줄이며, 기업의 규모와 힘을 약화시켜 생존 기업의 성장을 지연시킨다.

이익이전은 아프리카 대륙에 연간 약 2,75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는 예산 편성의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소득, 이익,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3%에서 48%까지 다양하며, 이는 지역 중 가장 높다.⁵² 정부는 이중과세를 줄이고 세금 납부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업에 고유 세무식별번호를 발급하는 세무 현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조치에는 또한 자산 가치, 매출, 또는 이익에 기반한 기업 세금 면제 기준 설정과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세금 감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나 세무청이 국가신원확인청과 협력하여 세수 징수를 파악하기 위한 신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2021/2022 회계연도에 총 세무 등록을 3배 증가시켰다.⁵³

거버넌스와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한다.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구축은 예산 편성의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아프리카의 공공지출 및 재정책임성(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PEFA) 성과 평가 보고서는 계속해서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의 공공회계특별위원회와 감사기관과 같은 감독 기관을 강화하면 정부 투자를 우선순위화하고 낭비를 줄이며 공공 지출이 국가 개발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패와 횡령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 수입 징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험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은 기술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부문별 탈세 관행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과 관련 산업 규제기관 간의 기관 간 조정을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잠비아의 경험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용한 사례가 된다. 광업 과세에 초점을 맞춘 다년간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재산이전세 600만 달러와 광업 법인소득세 수입 5,800만 달러 징수에 기여했다.⁵⁴

- *세무 행정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디지털화에 투자한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하면 대규모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진화하는 무역 기반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사기를 탐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플랫폼, 모바일 결제 통합, 기타 자동화와 같은 디지털 도구에 투자해야 한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디지털 업그레이드, 자동화, 납세자 서비스 및 준수 개선으로 3,200만 명의 납세자를 확보하고 납세자 행동을 개선했으며, 자발적 준수가 약 0.4%포인트 증가하여 75.5%에 달했고, 2023/2024 회계연도에 연간 세수 징수가 15.8% 증가하여 약 150억 달러에 기여했다. 계획된 향후 자동화는 미납 부채, 연체된 신고, 재정 누수로 인한 징수되지 않은 세수 약 410억 달러의 세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⁵⁵
- *지역 체제와 정책 공유를 활용하여 균일한 법인세율을 확립한다.* 정부는 아프리카연합위원회와 같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적의 세수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동 지역 감사는 집행 관행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된 접근법은 각국이 국내 세수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세무행정포럼은 글로벌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BEPS 체계에 기반한 모델 법안 개발을 도울 수 있다. 그러면 각국 재무부가 이 규칙들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것이다. 단결된 공조를 보임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별 회원국이 투자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 없이 세원을 보호할 수 있다.
- *부패 척결을 위해 지역적 접근법과 국가 간 강화된 조정을 채택한다.* 아프리카연합은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11개국에게 비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⁵⁶ 이는 지역 조달 관행과 지역 전반에 걸쳐 정보 접근을 촉진하는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 부패방지 정책을 실행하는 공통 전략과 공유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각국 정부는 공공 재정과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생체인식 기술과 계약 협상 및 조달 시스템에서의 블록체인과 같은 기타 신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케냐의 전자시민 플랫폼은 일부 교훈을 제공한다.⁵⁷ 독립적이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사법부를 구축하면 부패를 억제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모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사법부의 지원을 받아 홍콩의 독립부패방지위원회는 고도로 부패한 상태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관으로 변모했다.⁵⁸

- 불법 자금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일관되고 조정된 대응을 실행한다. 범죄 및 부패 행위를 통해 얻은 자원은 종종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불법 유출 방지, 금융 수사 지원, 도난 자산 회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FATF형 지역기구와 같은 여러 글로벌 및 지역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및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기술적·제도적 역량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세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자간 이니셔티브 참여가 제한적이다. 또한 불법 자금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주체 간의 교류나 정보 공유도 많지 않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제 세무 기준과 자금세탁 방지 규정의 준수를 시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 파트너들은 아프리카의 실행 기관들이 회수된 자산의 회수, 송환, 관리를 위한 대륙적 청사진인 자산 회수에 관한 공통 아프리카 입장과 같은 글로벌 및 지역 이니셔티브에 현지 규정을 맞추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최적의 성과를 위해 독립적인 법 집행 기관과 기타 거버넌스 제도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사법 자율성, 확립된 입헌주의, 입법부,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정부를 통한 법치 존중과 시민 자유 보호는 국정 참여의 평등과 국가 부의 공평한 분배로 강화되어 모든 시민을 위한 포용성을 높이고 기회주의적 행동의 동기를 제거하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줄인다. 국가 결속 외에도 유엔 및 지역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과 협력은 내전이나 무력 충돌 시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쟁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의 경우, 국제사회가 제도와 법치를 강화하고 취약성의 조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무력화와 같은 불안정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충성을 잠재우는 핵심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전환지원제도(Transition Support Facility, TSF)는 취약성과 갈등에 직면한 국가들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제도와 거버넌스 구조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취약 계층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더 많은 천연자본 동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법적 체계는 천연자원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법의 시행은 종종 공공 이익과 상충된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 접근을 통제하는 데 핵심적인 허가권 인허가는 경쟁 입찰보다는 직접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륙의 많은 자원 부국에서는 제한된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하류 광업 산업의 현지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광업법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⁵⁹

정부와 투자자 간의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천연자원 계약은 천연자본의 과도한 개발과 손실로 이어진다. 생산분할협정은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맞춰 매력적이며, 주로 석유 부문에서 정부가 탐사와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와 전문성을 유치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개발 파트너들은 아프리카의 실행 기관들이 현지 규정을 글로벌 및 지역 이니셔티브에 맞추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국은 광물 개발
협정에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필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반면 조광권은 기업에게 로열티와 세금을 대가로 자원을 채굴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형태의 광업 협정은 종종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기밀 조항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협정은 특히 안정화 조항이 포함될 때 국가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⁶⁰

아프리카 국가들은 향상된 기술적 역량과 능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광물 협상 담당자들의 경우, 협정의 주요 조항 공개와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합의된 이행 규칙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연합의 아프리카 광업 비전(African Mining Vision, AMV)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활용하고 아프리카 법적 지원 기구(African Legal Support Facility, ALSF)를 지원하여 자원 채굴법과 산출국에 대한 더 공정한 자원 임대료 지급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AMV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자원 계약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역량 강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LSF는 국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자원 부족들에게 계약 단계에서 비대칭적 법적·기술적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각국은 광물 개발 협정에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필수 조항을 포함하여 광물 자원의 무분별한 채굴과 원자재의 해외 수출을 통한 후속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천연자원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2장 참조).

아프리카에서 개발을 위한 천연자본의 효과적 활용은 제한된 협상 능력, 낮은 투명성, 그리고 신중한 규제 관행의 미흡한 집행으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 개발 촉진에서 천연자본의 효과성은 국가, 민간, 글로벌 주체들이 관여하는 채굴 부문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많은 정부들은 채굴 부문의 자본집약적 특성 때문에 투자와 기술 전문성을 외국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우세한 지위는 이들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지만, 수익 배분과 규제 감독 면에서 정부에게 어려움을 조성한다.

거버넌스와 제도 강화를 통한 천연자본 자산 개선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천연자원 계약 및 수익 지급에 대한 의무적 공개 요구사항을 제정한다.** 라이베리아의 공개계약포털과 같은 중앙집중식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채굴 산업에서 발생하는 계약 및 수익 지급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채굴산업투명성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기준을 의무 요구사항으로 운영하되, 준수 보장을 위해 독립 감사기관이 지역 감독기관을 제공한다. 채굴 산업 담당 국가부처와 반부패기관이 주요 실행 주체 역할을 담당한다. 투명성 공개 관련 계약 이행은 기니 당국이 13억 달러 규모의 광업 계약을 재협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자천자본으로부터 재정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의 공개 경매 체계를 채택한다.** 아프리카 채굴 계약의 입찰 과정은 현지 조달 요구사항과 환경 보호장치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 유지를 위해 경매 결과를 공개하여 검토받도록 해야 한다. 모잠비크는 액화천연가스 라이선스의 경쟁 경매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정부 수익을 30% 이상 늘렸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 방식을 적용하여 정치적 영향력과 부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자금 손실과 투자자-정치 엘리트 간 지속적인 유착 관계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의 아프리카자연자원투자센터, 아프리카연합위원회의 아프리카광물개발센터, 아프리카법적지원기구 등이 경매 시스템을 시행하는 국가 채굴 부문 규제기관에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 **자원 기반 산업화를 통해 국내 가치 보유를 강화한다.** 아프리카 자원 집약적 경제국가의 당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수혜 요구사항과 표적 산업 정책을 통해 채굴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의무화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 부국을 원자재 수출국에서 가공·제조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내 가치 보유 강화는 광업·석유 협정에 현지 수혜를 요구하는 법적 조항 도입, 자원 현장 인근 광물 가공구역이나 산업단지 설립, 명확한 종료일과 함께 목표 지향적 세제 혜택·인프라 접근·신용 보증을 부가가치 및 가공 공장 투자 기업에 제공, 현지 조달 인증 시스템과 국내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국경 간 산업 허브를 통한 지역 광물 가치사슬 개발을 추진한다.** 생산 가능성 확대와 자연·인적 자원의 국경 간 활용 강화는 국내 산업 및 지역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 정부는 조화로운 정책, 공동 인프라, 시장 통합을 활용해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희토류 원소)의 국경 간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지역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유 가공 인프라 관련 양자·다자간 협정 협상(공공민주공화국-잠비아 리튬 회랑), 지역 간 수출세·현지 조달 정책·투자법 표준화, 반가공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무역 촉진 및 관세 개혁 조정, 국가·지역 개발금융기관 지원을 통한 산업구역·연구개발센터·물류 허브 개발 자금 통합 등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더 많은 금융자본 동원

아프리카 금융시장은 대체로 적절한 법적 기반과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같은 시장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탐지하고 집행할 충분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⁶¹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금융시장 개발, 결제 시스템 개선, 규제 체계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깊이, 접근성, 효율성 진전을 평가하는 평균 금융개발 임계 지수 0.5에 도달한 아프리카 국가는 하나도 없다.⁶²

건전한 법적·규제 체계, 청산·결제 시스템, 거래 기록 정보의 부족은 자본 접근을 제한하고 소외계층의 경제 참여 능력을 제약한다.

잘못 설계된 규제 역시 혁신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킨다. 아프리카는 지나치게 복잡한 신용보고와 대출승인 절차,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관리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요구사항 등 관료적인 금융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규제 장벽들은 투자를 막고 대출 비용을 높이며 금융 포용성을 해친다. 규제를 간소화한 국가들은 세계은행 사업준비지수 순위가 올랐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준비보고서를 보면 르완다는 자본시장 거래비용을 크게 낮추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업 성장과 운영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아프리카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금융자본 동원은 제도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 사법부, 의회, 법 집행기관, 부패방지기관 같은 기관들은 대개 자금 부족과 인력 부족, 그리고 제 기능을 수행할 역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기관은 자금세탁이나 다국적기업의 이익이전 같은 조직적 금융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이는 법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법부 직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자의적 임명은 법적 보호를 더욱 약화시켜 재산권과 계약 이행에 불확실성을 조성한다.⁶³

생산 가능성을 넓히고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의 국경 간 활용을 강화하면 국내 산업과 지역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이 취약하고 법적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공정한 이익 분배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법부 독립성을 확립하고 핵심 거버넌스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원 배분을 늘리고 법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금융자본 자산 동원과 활용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 심화

장기 저축을 동원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환경을 개선한다. 아프리카 자본시장은 아직 초보적 단계이지만, 개선된 규제 환경을 통해 금융자본을 동원할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건전한 규제 체계는 시장 인프라 발전을 촉진하고, 공개 원칙과 투명성을 장려하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집행 가능한 규제 같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프리카 정부와 금융시장 규제 당국은 자산 토큰화 같은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2024년 실물자산 토큰화 회사인 DAMREV는 나미비아 구리 광산을 토큰화하는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협정을 통해 DAMREV는 부분 소유권을 창출하고 유동성 증대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나미비아 광업 부문의 자산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모카 프로젝트(Project Mocha)가 블록체인상에서 커피나무를 토큰화하여 소농을 지원하고 있다. 소농들은 자신의 커피나무 일부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을 판매할 수 있으며, 토큰 보유자들에게는 10년간 커피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농장 복구, 장비, 교육을 위한 확대된 자금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⁶⁶

- *규제 및 행정 프레임워크를 조화시키고 국경 간 투자 장벽을 줄인다.* 국가 금융기관 간의 더 큰 협력을 촉진하면 크고 견고한 자본시장을 만들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도구의 개발을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 증권거래소와 자본시장이 분편화되고 고립된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맥락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는 풍부한 기회가 존재한다. AfCFTA가 완전히 시행되면 무역 활동이 활성화되고 고수익 투자 기회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 상장 규칙 조화와 아프리카증권거래소협회 같은 지역 중개기관 설립을 통해 거래소와 허가받은 기업 간 투자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국제금융기관의 기술 지원을 받아 투자자들이 아프리카 전역의 다른 관할권에서 거래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제 보호장치를 구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⁶⁷

- *기술 인프라, 규칙, 절차를 포괄하는 공통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당사자 간 금융자산이나 증권 거래가 가능해지고, 결제·증권 정산 시스템부터 디지털 화폐 구조까지 아우르는 인프라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범아프리카결제정산시스템(Pan 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PAPSS)이 아프리카 각국의 자본시장과 거래 체계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한다. 40개가 넘는 화폐가 쓰이는 대륙에서 PAPSS를 전면 도입하면 제3국 화폐 의존도가 줄어들고 아프리카 내 무역이 크게 늘어나며, 여러 거래소에서 자국 화폐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인프라 자금조달 격차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다.* 2023년 아프리카 외환보유고 4,119억 달러는 구조적 변화 가속화를 위해 연간 필요한 자금조달 격차 추정액 4,022억 달러를 넘어선다. 각국은 외부 부채보다 국제결제은행에 더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고를 최적으로 활용한다면 성장 촉진 부문 투자로 이어져 수출과 보유고를 더욱 늘릴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은 축적된 보유고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내 상업은행의 적절한 자본 확충에 달려 있다. 나이지리아가 성공 사례의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⁶⁸ 은행 부문 개혁 후 재자본화된 국내 예금수취 상업은행들은 보유고 일부만 관리하도록 허용되었다.

국가 금융기관
간의 협력
확대는
대규모의
견고한
자본시장을
구성할 수 있다.

대륙 내 자본시장 통합 이니셔티브는⁶⁹ 외환보유고가 과잉인 국가들이 국내 거시경제적 고려에 기반하여 규정된 비율을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자원이 아프리카의 생산적 인프라 개발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재활용을 설계한다.** 자산 재활용은 대륙의 인프라 자금조달 격차를 줄이고 연계된 프로젝트 원조에 대한 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Africa50 같은 금융 수단을 통해 기존의 노후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⁷⁰

2024년 Africa50은 감비아 정부와의 1억 달러 자산 재활용 프로그램의 첫 번째 1,550만 달러 분할금을 지급한 후 세네갈비아 다리의 운영을 인수했다. 토고 또한 3억 6,130만 달러 규모의 로메-크팔리메 도로 프로젝트를 수익화하기 위해 Africa50과 협력하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정부들의 이러한 프로젝트 실행에서의 열악한 실적과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자산 재활용의 금융 수단으로서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비즈니스 자본의 잠재력 발휘

아프리카의 기업가 정신은 부적절한 지원 인프라와 취약한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통계를 보면 근로연령 아프리카인 5명 중 1명 이상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75% 이상이 5년 내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⁷¹ 기업가 정신의 성장은 주로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는 낮은 자금 접근성과 사업 비용을 높이는 번거로운 규제 등 지원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의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외 투자 유치는 아프리카 경제를 천연자원 의존에서 다각화하는 데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한 규제 정책과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 끌린다.

대규모 순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을 유치하면 기업들이 국제 자본시장을 활용할 기회가 늘어나 규모 확장과 성장,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주식 투자 흐름의 변동성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제도적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제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긍정적 수익과 함께 규제 부담 및 환율 손실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수익을 본국에 송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제 시스템을 갖춘 국가와 지역을 선호한다.

공공 조달 과정의 근본적 개혁은 투명성, 경쟁, 효율성, 공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규제 품질 강화는 대리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조작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지대추구 행동의 위험을 줄인다.⁷² 조달 절차를 규제하는 하위 법률이 뒷받침하는 조달법 제정은 의사결정, 효율성, 공정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 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은 경쟁과 더 큰 감시를 촉진하는 동시에 정부에게 입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사기를 해결하고 부패 위험을 완화한다. 르완다에서는 Umucyo 전자조달 플랫폼이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세무청, 등기소, 상업은행, 기타 금융기관 시스템을 포함한 24개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이 자동화된 시스템은 2022년 200개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의 1,200개의 정부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며, 13,800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26,800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조달 데이터를 개방계약 데이터 표준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⁷³

조달 절차를 규제하는 세부 법령이 뒷받침하는 조달법은 의사결정과 효율성, 공정한 경쟁을 높일 수 있다.

강력하고 민주화된 디지털 인프라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아프리카 전반의 여러 부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더 많은 비즈니스 자본 동원

-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자본 개발을 위한 양질의 제도에 투자한다.* 양질의 제도는 사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상업 자본 보유자들을 독려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절한 법률과 규제, 집행 전략을 통해 제도적 체계를 조화시켜야 한다. 데이터 보호, 무역 촉진,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 조항을 갖춘 강력하고 민주적인 디지털 인프라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부문에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세스 효율성을 개선해 부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더 넓은 접근을 제공해 소비를 늘릴 수 있다.
- *비즈니스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스타트업에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평가 시스템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개선하면 사업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자금조달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지며,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저조한 매출과 불충분한 유동성으로 인해 높은 실패율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정보기관, 신용등록소, 담보등록소 및 유사한 차용자 정보 수집 기관들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채무 불이행 성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⁷⁴ 따라서 정부는 엔젤 투자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제공하며, 공격 자금을 통해 투자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 *새로운 부패 사례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기관에 자율성과 기소권을 부여한다.* 정책 불확실성과 불리한 비즈니스 환경은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촉진되어 법치주의를 우회할 여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가 비즈니스 요구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맞춤화해야 한다. 국내 감시 기관 간 협력과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장려하여 아프리카의 새로운 부패 인식을 억제하는 정책 체계는 현지 및 외국 투자자 모두에게 투자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
- *국내 통화 차입을 통해 통화 위험을 최소화한다.* 발달된 국내 채무시장은 가격 형성을 장려하고 위험을 적절히 책정하며 국내 투자자 기반을 개발하고 통화정책 전달과 금융 안정성을 지원한다.

따라서 현지 통화 채권시장은 정부의 자금조달원을 다각화하고 확대하며, 자금조달 변동성을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별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내 자원 동원 강화"⁷⁵에 관한 IMF와 세계은행의 공동 이니셔티브는 공공 채무시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프리카의 신중한 조정과 거시경제 안정은 국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이자 지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정 적자와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에 기반해야 한다. 주로 외부 부채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자 지불은 정부 수입의 약 27.5%를 차지한다.⁷⁶ 무분별한 국내 차입으로 이어지는 재정 방만은 민간 투자를 구축해내어 전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⁷⁷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인적자본 발취

국가 간 생산성 격차는 더 나은 제도적 구조와 법치주의에 대한 더 많은 존중을 통해 줄일 수 있다.⁷⁸ 부패에 대한 더 나은 통제는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되는 고등교육과 초등교육 모두에 대한 생산성 수익을 강화한다. 이는 사소한 부패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같은 작은 거버넌스 위반조차도 인적자본 투자의 효과성을 떨어뜨려 결국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버넌스와 제도, 법치주의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인적자본의 취약점은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제도의 품질을 반영한다. 부패를 특징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낮은 품질의 제도적 거버넌스는 자금 부족한 교육 시스템과 붕괴된 의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두뇌 유출이나 인적자본 유출은 이러한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는 국가를 선호하여 부정부패와 취약한 거버넌스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반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낮은 인적자본과 높은 이주율이다.⁷⁹ 그러나 2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주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의 인적자본 수요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재정 부실 관리와 관료적 분절화는 효과성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를 약화시켰다. 강력한 책임성 체계는 신뢰를 조성하고 교육의 사회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한다.⁸⁰ 따라서 학교 자금조달을 성과와 연계한 르완다의 진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거버넌스 혁신이 어떻게 품질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⁸¹ 이 배정의 최소 5%는 직업 훈련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인적자본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는 학교와 직업 센터에서 교사 출석과 수업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우선 조달 시스템 채택과 같은 거버넌스 개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또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또한 관료적 분절화를 제거하고 감독 기관의 책임성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 대학 이사회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개혁은 자원 배분과 사용의 격차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책임성을 구축할 수 있다.⁸² 국제적 증거는 또한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제공에서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능력 기반 채용, 자율성, 전문적 규범의 이익을 보여준다. 핀란드에서는 강력한 동료 책임성과 제한된 하향식 감독의 결합이 국가의 양질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⁸³

인적자본 개발

- *대륙에서 인적 역량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업 훈련과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인적자본 투자를 개발한다.* 아프리카 노동시장의 과제는 개발을 위한 인적자본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킨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특히 노동시장 수요와 교육 성과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대륙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 정부는 권장되는 교육 지출 20%(2장 권고사항 참조) 중 일부를 직업 및 기술 훈련에 배정하고 인프라, 자격을 갖춘 훈련자 유지, 교육과정 개혁을 우선시하여 이를 시장 수요와 연계해야 한다.

이 배정의 최소 5%는 직업 훈련에 사용되어야 한다. 인적자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거버넌스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와 직업 센터에서 교사 출석과 수업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우선 조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디지털화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자정부를 통해 인적자본 개발을 분권화한다. 인적자본 거버넌스, 특히 교육의 분권화는 특히 공간적 불평등과 지역 개발 불균형이 있는 국가에서 현지 수요와 더욱 밀접하게 일치하는 맥락별 개혁을 가능하게 한다.⁸⁵ 개선된 포용성과 접근성 같은 교육 및 보건 거버넌스의 진전은 더 강력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분권화와 연결되어 있다.⁸⁶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입찰을 위한 뇌물이나 약물 도난 같은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교사와 돌봄 제공자의 결근을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제공 추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 체계는 제도적 반응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이 공동체에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인적자본 개발을 촉진한다.

- *보다 나은 보건 부문 성과를 위해 전체 건강보험 적용범위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거버넌스를 지방 당국에 이양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 당국으로의 권력 이양(사실상의 분권화)은 정책 개발에서 준국가급 정부의 참여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자와 실행자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지역사회 수준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저해해 온 중앙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분권화가 의료와 교육 성과에서 성과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디아스포라 기술을 활용한다.* 아프리카에서 고숙련 개인들의 이주는 송금을 통한 디아스포라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의 누수이다.

강력한 책임성 체계는 신뢰를 조성하고 교육의 사회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디아스포라를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
기반 이주
파트너십에
집중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송금을 넘어서 숙련 및 비숙련 디아스포라 근로자 모두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더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는 출신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도 구축과 리더십 부족 해결에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국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을 유지할 것이다. 정부는 디아스포라 채권을 통한 개발 금융의 효과적 동원을 위해 디아스포라를 활용하고 무역 촉진, 기업가정신, 기술, 지식 공유, 두뇌 순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구조화된 기술 기반 이주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숙련 이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 공기업 설립해야 한다. 모로코와 유럽연합 및 독일의 협력은 이주의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부문별 파트너십의 모범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요구사항, 일자리 식별, 통합 용이성을 위한 언어 훈련에 지원을 제공하는 이주와 개발 센터가 설립되었다.⁸⁸

- 특히 시민권 정책을 경제 및 거버넌스 개혁과 일치시키는 개혁은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가 법적 또는 관료적 장애물 없이 사업을 설립하여 핵심 부문과 접객업, 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아프리카 54개국 중 약 30개국만이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⁸⁹ 이 권리는 해당 국가의 헌법이나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들의 운영은 종종 제도적·물류적 도전과제로 인해 저해된다.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디아스포라를 국가 거버넌스에서 배제하는 추진 요인을 만들어 소속감을 상실시킨다. 따라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투표 또는 정치적 리더십 직책 출마를 포함하여 고국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효과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개혁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이주로 인해 잃어버린 기술과 역량의 재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거버넌스, 투명성, 법치주의를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는 곳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조항들의 운영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주석

1.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nacted in 2000, is the core of US economic policy and commercial engagement with Africa. It provides eligible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with duty-free access to the US market for more than 1,800 products, in addition to the more than 5,000 products that are eligible for duty-free access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gram
2. EAC 2023.
3. IMF 2017.
4. Fang et al. 2020.
5. AfDB 2024b.
6. AfDB/AUC/AUDA-NEPAD 2024.
7. AfDB 2024b.
8. AfDB 2024b.
9. AfDB 2021a.
10. AfDB 2024b.
11. This is based on a study conducted by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on Measuring the Green Wealth of Nations: Natural Capital and Economic Productivity in Africa, launched at CoP 29.
12. <https://www.mapsofworld.com/africa/thematic/coastal-countries.html>.
13. Cust and Zeufack 2023.
14. BloombergNEF 2021.
15. BloombergNEF 2021.
16. <https://www.afdb.org/en/documents/strengthening-africas-role-battery-and-electric-vehicle-value-chain-volume-14-issue-7>.
17. See <https://www.daimagister.com/resources/remittances/>.
18. According to Adeseye (2021) and other analysts, 70 percent of remittances are for consumption while 30 percent is for investment.
19. Rödl and Partner 2018.
20. Ohnsorge and Yu 2021.
21. World Bank 2020.
22. This figure assumes that Africa's debt-to-GDP ratio in 2025–2030 increased conservatively by about 5.0 percentage points (the average annual pre-pandemic growth between 2016–19) and that any new debt is in local currency through issuance of long-term bonds.
23. Currently, many countries in Africa allocate less than half a percent of their assets in equity investment. Based on available date, only Uganda allocated 2.4 percent of its AUM towards equity investments (AfDB/AUC/AUDA-NEPAD 2024). Therefore, by just allocating 1 percent, African pension funds can generate about 17 percent of the estimated financing gap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24. See also AfDB (2024a) on different innovative financing the AfDB has utilized since 2015 to raise resources for Africa's development.
25. African Development Fund,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s concessional financing arm to low-income regional member countries.
26. Based on data from Xu et al. (2021).
27. <https://cdn.github.org/umbraco/media/5354/g20-ieg-report-on-strengthening-mdbs-the-triple-agenda.pdf>.
28. UNCTAD 2020; Ndikumana and Boyce 2025.
29. Wickberg 2013.
30. UNCTAD 2020.
31. AfDB 2021a.
32. <https://www.afdb.org/en/topics-and-sectors/initiatives-and-partnerships/african-beneficial-ownership-transparency-network>.
33. Beardsworth et al. 2022.
34. For detailed discussion of the policy actions on the valuation of natural capital, see AfDB (2024c), Measuring the Green Wealth of Nations: Natural Capital and Economic Productivity in Africa.
35. https://www.visaopenness.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2024_AVOI_final_R3_20nov24_2.pdf.
36. See Kenya National Ethics and Anti-corruption Policy and South Africa 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2020–2030).
37. UNCTAD 2024.
38. UNCTAD 2025.
39. IMF 2018.
40. OECD 2017.
41. UNU-WIDER 2025.
42. IBFD 2023.
43. Tax Justice Network 2024.
44. Ndikumana and Boyce 2025.
45. Se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on State Capture 2021.
46. Atuobi 2007; Martin and Solomon 2016, Ndikumana and Boyce 2025, Hangalima 2023; Dikmen and Çiçek 2023; Ozor and Nyambane 2020; IMF 2011; Griffiore et al. 2023.
47. OECD, AUC, and ATAF 2023.
48. Jahnke and Weisser 2019.
49. Boly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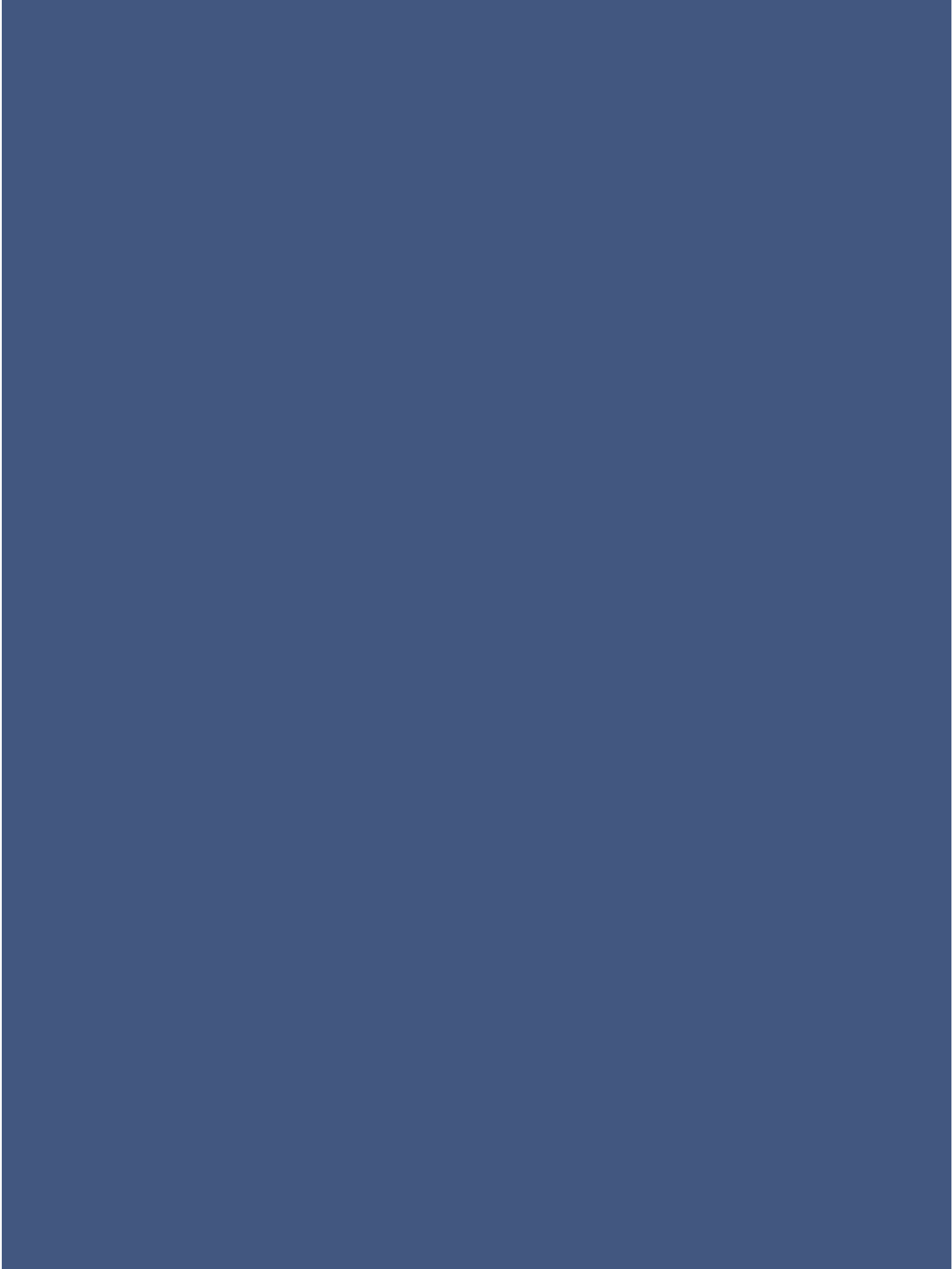
50. Ezeoha et al. 2023.
51. This refers to taxes imposed by more than one jurisdiction—federal, state, and municipal—on the same declared income, financial transaction or asset.
52. Okunogbe and Santoro 2022.
53. GRA 2023.
54. <https://www.ataftax.org/impact-story-boosting-zambias-mining-revenue-through-tax-audits-transfer-pricing-legislation-and-license-valuation>.
55. <https://www.sars.gov.za/latest-news/media-release-sars-is-committed-to-serving-south-africans/>.
56. Central African Republic, Cabo Verde, Djibouti, Eritre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Rwanda, Senegal, South Sudan, and Zimbabwe.
57. World Bank 2017.
58. Johnstone 2022.
59. <https://www.iiied.org/formalising-artisanal-cobalt-mining-drc-much-work-remains>.
60. See Adam and Simpasa (2009), for the case of Zambia.
61. https://www.afdb.org/sites/default/files/2022/12/14/afdb_acmcs_concise_final_report_23_july_2022_isc.pdf.
62.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249082/1/wp21-074.pdf>.
63. See Milej and Ogada (2024) for Kenya and Simwatachela (2024) for the case of Zambia. These cases are not unique to the two countries.
64. Tokenization is the process of recording the rights to a given asset into a digital token that can be held, sold, and traded on a blockchain.
65. <https://itweb.africa/content/5yONPvEr4zK7XWrb>.
66. <https://cointelegraph.com/magazine/tokenization-projects-transforming-farmers-lives-africa/>.
67. Afreximbank 2024.
68. Marcellus et al. 2021.
69. The standard threshold for foreign exchange reserves holdings a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s 3 months import cover or more, and above 100 percent of short-term debt of a country. However, these benchmarks are subject to other factors including structural challenges and shocks that a country faces at a particular time to warrant the decision of “excess.”
70. Africa50 is a regional financing vehicle for long-term investment was established by African governments and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o help bridge Africa’s infrastructure funding gap.
71. <https://ichikowitzfoundation.com/storage/ays/ays2022.pdf>.
72. Canen and Wantchekon 2022.
73. <https://www.open-contracting.org/2024/06/03/strengthening-public-procurement-in-africa-a-conversation-with-joyeuse-uwingeneye/>; <https://www.open-contracting.org/2023/11/07/the-3-revolutions-of-public-procurement-in-africa/>.
74. Pagano and Jappelli 1993; Galindo and Miller 2001; Kallberg and Udell 2003; Triki and Gajigo 2014.
75. IMF and World Bank 2025.
76. Afreximbank 2025.
77. Bai et al. 2024.
78. Fadiran and Akanbi 2016; Acemoglu et al. 2001; Hall and Jones 1999.
79. Beine et al. 2008.
80. Cerna 2023; Lewis and Pettersson 2009.
81. Lewis and Pettersson 2009.
82. Khemani 2019; Finan, Olken, and Pande 2015.
83. World Bank 2018; Finan, Olken, and Pande 2015.
84. Some countries have no identifiable share of the budget devoted specifically to TVET activities while others have 15 percent. We postulate that a 5 percent average allocation could help drive skill development.
85. Naidoo 2004.
86. Saint 2009.
87. Hertzog 2017.
88. 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4.
89. Anon (2015), cited in Zimbabwe Election Support Network (2019). Available at <https://www.zesn.org.zw/wp-content/uploads/2019/10/ZESN-Position-Paper-on-Diaspora-Voting.pdf>.

참고문헌

- Acemoglu, D., S. Johnson, and J.A. Robinson.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1 (5): 1369–1401.
- Adam, C., and A. M. Simpasa. 2009. "Harnessing Resource Revenues for Prosperity in Zambia." OxCarre Research Paper 36, Oxford Centre for the Analysis of Resource Rich Economies.
- Adeseye, A. 2021. "The Effect of Migrants Remittance on Economy Growth in Nigeria: An Empirical Study." *Ope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 99–122. <https://doi.org/10.4236/ojps.2021.111007>.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1. *African Economic Outlook 2021: From Debt Resolution to Growth: The Road Ahead for Africa*. Abidjan, Côte d'Ivoire: 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4a. *Africa's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Outlook 2024*. Abidjan, Côte d'Ivoire: 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4b. *African Economic Outlook 2024: Driving Africa's Transformation: The Reform of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Abidjan, Côte d'Ivoire: 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4c. *Measuring the Green Wealth of Nations: Natural Capital and Economic Productivity in Africa*. Abidjan, Côte d'Ivoire: AfDB.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AUC (African Union Commission), and AUDA-NEPAD (African Union Development Agency –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2025. *Strategic Framework on Key Actions to Achieve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 Afreximbank (African Export–Import Bank). 2024. *Africa Trade Report. Climate Implications of the AfCFTA Implementation*. Cairo: Afreximbank.
- Afreximbank (African Export–Import Bank). 2025. *African Debt Outlook: A Ray of Optimism*. Cairo: Afreximbank.
- Anon. 2015. Cited in Zimbabwe Election Support Network (2019), "Diaspora Voting." <https://www.zesn.org.zw/wp-content/uploads/2019/10/ZESN-Position-Paper-on-Diaspora-Voting.pdf>.
- Atuobi, S.M. 2007. "Corruption and State Instability in West Africa: An Examination of Policy Options." KAIPTC Occasional Paper No. 21: 1–24.
- Bai, G., Z. Chai, C. Ling, S. Wang, J. Lu, N. Zhang, and L. Zhao. 2024. "Beyond Efficiency: A Systematic Survey of Resource-Efficient Large Language Models." *arXiv Preprint arXiv:2401.00625*.
- Beardsworth, N., and others. 2022. *Study on Political Cadres and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Local Authorities*. Lusaka: Southern African Institute for Policy and Research (SAIPAR).
- Beine, M., Docquier, and H. Rapaport. 2008. "Brain Drain and Human Capital Form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inners and Losers." *The Economic Journal* 118(528): 631–652.
- BloombergNEF. 2021. *The Cost of Producing Battery Precursors in the DRC*. New York: Bloomberg.
- Boly, A., S. Coulibaly, and E.N. Kéré. 2020. "Tax Policy,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pillover Effects in Afric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29 (3): 306–331.
- Canen, N., and L. Wantchekon. 2022. "Political Distortions, State Cap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6 (1): 101–124. <https://doi.org/10.1257/jep.36.1.101>.
- Cerna, L., and M. H. Chou. 2023. "Politic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Migration–Higher Education Nexus."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21(2): 222–235.
- Changalima, I.A., and A.E. Mdee. 2023. "Procurement Skills and Procurement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The Mediating Role of Procurement Planning." *Cogent Business & Management* 10 (1): 2163562.
- Cust, J., and A. Zeufack. 2023. *Africa's Resource Future: Harnessing Natural Resources for Economic Transformation during the Low-Carbon Transition*. Africa Development Forum. Washington, DC: World Bank.
- Dikmen, S., and H. G. Çiçek. 2023. "Fighting Against Corruption and Bribery in Public Procurem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Ethics of Briber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edited by R. W. McGee and S. Benk, 309–328.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https://doi.org/10.1007/978-3-031-17707-1_18.
- EAC (East African Community). 2023. *Trade and Investment Report 2023*.
- Ezeoha, A., A. Igwe, C. Okoyezu, and C. Uche. 2023. "The Fiscal Effects of Armed Conflicts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Review* 35(4): 444–456.
- Fadiran, D. O., and O. A. Akanbi. 2018. "Institutional Approach to Debt Determination: The Nigerian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Economy* 10 (1): 41–60.
- Fang, X., S. Kothari, C. McLoughlin, and M. Yenice. 2020.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flict in

- Sub-Saharan Africa." Working Pap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Finan, F., B. A. Olken, and R. Pande. 2015. "The Personnel Economics of the State." Working Paper 218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www.nber.org/papers/w21825>.
- GRA (Ghana Revenue Authority). 2023. *Annual Report 2023*.
- Galindo, A., and M. Miller. 2001. "Can Credit Registries Reduce Credit Constraints?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Credit Registries in Firm Investment Decisions." Working Paper,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ashington, DC.
-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4. <https://www.bmz.de/en/news/press-releases/germany-and-morocco-strengthen-cooperation-migration-197372>.
- Global Witness. 2018. *Take the Future: Shell's Scandalous deal for Nigeria's Oil*. London: Global Witness. https://gw.cdn.ngo/media/documents/Take_the_Future_.pdf.
- Griffore, K.A., A. Bowra, S.J. Guilcher, and J. Kohler. 2023. "Corruption Risks in Health Procure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Anti-Corrup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A) Mechanisms to Reduce These Risks: A Rapid Review." *Globalization and Health* 19 (1): 91.
- Hall, R.E., and C.I. Jones. 1999. "Why Do Some Countries Produce So Much More Output per Worker Than Othe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1): 83–116.
- Hertzog, M.J. 2017. *Protections of Tenure and Academic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Evolution and Interpretation*. Cham: Springer.
- IBFD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2023. *IBFD Report*. <https://financing.desa.un.org/sites/default/files/2023-08/IBFD%20Report%20-%20final.pdf>.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IMF Country Report No. 11/346.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cr/2011/cr11346.pdf>.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7. "Increasing to Large and Volatile Capital Flows: The Role of Macroeconomic Policies." Policy Paper, IMF, Washington, DC.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8. *Governance, Institutions and Emergence*. Washington, DC: IMF.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World Bank. 2021. *Stepping UP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A New Joint Initiative from the IMF and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IMF and World Bank.
- Jahnke, B., and R. A. Weisser. 2019. "How Does Petty Corruption Affect Tax Morale in Sub-Saharan Africa?"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0: 101751. <https://doi.org/10.1016/j.ejpoleco.2018.09.003>.
- Johnstone, S. 2022. "It Takes a Whole Society: Why Hong Kong's ICAC Cannot Succeed Alone."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pap-05-2022-0042/full/html>.
- Kallberg, J. G., and G. F. Udell. 2003. "The Value of Private Sector Business Credit Information Sharing: The U.S. Cas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7 (3): 449–469. [https://doi.org/10.1016/S0378-4266\(02\)00387-4](https://doi.org/10.1016/S0378-4266(02)00387-4).
- Khemani, S. 2019. "What Is State Capacit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8734, World Bank, Washington, DC.
- Lewis, M. A., and G. Pettersson. 2009. "Governance in Health Care Delivery: Raising Performa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074,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598881468161366551/governance-in-health-care-delivery-raising-performance>.
- Marcellus, I., and others. 2021. *Recapitalization and Competition of Commercial Banks: Evidence from Selected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 Martin, M.E., and H. Solomon. 2016.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of 'State Capture' in South Africa." *Southern African Peace and Security Studies* 5 (1): 21–35.
- Milej, T., and E. Ogada. 2024. *Upholding Judicial Independence in Kenya: Challenges, Context and Solutions*.
- Naidoo, J.P. 2004.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and School Governance in South Africa: From Policy to Practice*. Harvard University.
- Ndikumana, L., and J. K. Boyce. 2025. *New Estimates of Capital Flight from African Countries, 1970–2022*. Amherst, MA: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7. *Trust and Public Policy*. Paris: OECD Publishing.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UC (African Union Commission), and 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2023.

- Revenue Statistics in Africa 2023*.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15bc5bc6-en-fr>.
- Ohnsorge, F., and S. Yu, eds. 2021. *The Long Shadow of Informality: Challenges and Policies*. Washington, DC: World Bank.
- Okunogbe, O., and F. Santoro. 2022. "Increasing Tax Collection in African Countries: The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32 (Supplement 1): i57–i83.
- Ozor, N., and A. Nyambane. 2020. *The State of Open Contracting in Selected African Countries*. Nairobi: African Technology Policy Studies Network (ATPS).
- Pagano, M., and T. Jappelli. 1993. "Information Sharing in Credit Markets." *Journal of Finance* 48 (5): 1693–1718.
- Republic of South Africa. 2021. *Judicial Commission of Inquiry into State Capture Report*, Vols. I–VI. Pretoria. <https://www.statecapture.org.za/site/information/reports>.
- Rödl & Partner. 2018. "Kenya: Impact of Technology on Tax Administ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roedl.com/insights/impact-technology-tax-administration>.
- Saint, W. 2009. "Legal Frameworks for Higher Education Governance in Sub-Saharan Africa." *Higher Education Policy* 22(4): 523–550.
- Simwatachela, M. 2024. "The Dual Legal System and Its Effec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Zambia." *Beijing Law Review* 15: 285–294.
- Tax Justice Network. 2024. *Profit Shifting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Evidence from Transactional Data in Nigeria*.
- Triki, T., and O. Gajigo. 2014. "Credit Bureaus and Registries and Access to Finance: New Evidence from 42 African Countries." *Journal of African Development* 16 (2): 73–101.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0.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Report 2020: Tackling Illicit Financial Flow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Geneva: UNCTAD.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4. *Global Economic Fracturing and Shifting Investment Patterns*. Geneva: UNCTAD.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5.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Geneva: UNCTAD.
- UNU–WIDER (United Nations University–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2025.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Reform for Fragile and Conflict Affected States*. Helsinki: UNU–WIDER.
- Wickberg, S. 2013. "Literature Review on Costs of Corruption for the Poor." U4 Expert Answers 382. Bergen, Norway: U4 Anti-Corruption Research Centr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hristian Michelsen Institute.
- World Bank. 2017. *Home-Grown Technology Firms Help Drive eGovernment Expansion in East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18. *World Development Report 2018: Learning to Realize Education's Promise*.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18>.
- World Bank. 2020.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doi.org/10.1596/978-1-4648-1559-1>
- Xu, J., R. Marodon, X. Ru, X. Ren, and X. Wu. 2021. "What Are Public Development Banks and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s?—Qualification Criteria, Stylized Facts, and Development Trends." *China Economic Quarterly International* 1(4): 271–294. <https://doi.org/10.1016/j.ceqi.2021.10.001>.



2024년 아프리카 경제 성과가 개선되었지만, 여러 충격과 늘어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륙 전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강력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에 힘입어 2023년 3.0%에서 2024년 3.3%로 소폭 상승했다. 2024년 성장률 상승은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29개국에서 나타났다. 또한 10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1.0%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증가를 기록했다.

2024년 아프리카 경제 성과가 개선되었지만, 여러 충격과 늘어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륙 전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강력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에 힘입어 2023년 3.0%에서 2024년 3.3%로 소폭 상승했다. 2024년 성장률 상승은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29개국에서 나타났다. 또한 10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1.0%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증가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의 성장 전망은 상당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중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에는 제한된 무역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과 경제 활동 감소를 통해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줄이고 자본 흐름의 역전으로 이어져 금융 및 투자 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깊이 뿌리박힌 국내 공급 병목현상과 공급 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통화정책 영향의 약화를 반영하는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예상되는 성장 반등을 억제할 수 있다. 지역 갈등의 지속과 추가 확대는 아프리카의 부진한 회복에 추가적인 위험을 제기한다.

아프리카의 느린 사회경제적 변화 속도는 여전히 역설로 남아 있다. 빈곤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천연자본, 인적자본, 비즈니스 자본, 금융자본을 포함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 부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급속한 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세계 전체 광물 매장량의 30%, 세계 미경작 경작지의 65% 이상, 6억 2,4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 그리고 나일강(1위)과 콩고강(9위)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들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는 가장 큰 자산이다. 인구의 60% 이상이 25세 미만이며,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바르고 적절한 순서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아프리카는 세금 및 비세금 수입원에서 그리고 자원 누수를 억제함으로써 연간 추가로 1조 4,300억 달러의 국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국내 자원을 추가로 동원하려면 아프리카의 방대한 자원 부존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규제의 집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아프리카는 2025-29년에 연간 추가로 4,694억 달러(GDP의 14.4%)의 재정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자금 유출과 부패를 억제하고, 국제적 이익 이전에 대응하며, 더 나은 국가 신용위험 평가를 촉구함으로써 아프리카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격차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 누수를 해결하려면 더 나은 데이터 수집, 이런 유출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 보고 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시아개발은행그룹

조세프 아노마대로 01 BP

1387 아비장 01

코트디부아르

www.afdb.org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EVELOPPEMENT

